

恩光衍世

이 광 연 세

2019





관람안내

관람시간 09 - 18시(매표 마감, 오후 5시)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 람 료 무료

대관안내

기본시설

교육관 좌석수 200석, 강당면적 221.90m², 무대면적 28.22m²

오전, 오후, 야간 기준

그 밖의 사용 냉난방시설(1시간), 상업용 영상 촬영, TV촬영, 영화 촬영

※ 시설허가신청서 작성 및 소정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찾아오는길

버스 (동문로터리, 용진교 하차 도보 5분)

간선 315

지선 426, 431, 432, 465, 466



김만덕기념관

주소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건입동)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http://www.mandukmuseum.or.kr>



제호설명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殊異之恩至入金剛山楮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有也書贈此篇以表其家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번역: 김익수)

은광연세(恩光衍世 :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유배 때 김만덕의 후손에게 써준 편액 문구입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를 통해서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길 바라는 제호입니다.

표지설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80년 김만덕상을 제정해 의인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제주의 정신으로 계승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여성을 발굴해 '봉사 부문'과 '경제인 부문'으로 나뉘, 부문별 1명을 시상한지 40주년이 되었다.

헌신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계승한 여성과, 경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환원한 여성을 선정한다.

발행 (사)김만덕기념사업회

발행인 상임대표 고 두 심

발행일 2019년 12월 27일 제4호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제4호

恩光衍世

은 광 연 세

2019

12월

From The Editor



“나는 항상 외로웠다. 그래도 내 운명을 후회하지 않는다.” 만덕심판에서 만난 고추 월 회장의 말씀이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플 시간도 쉴 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 남보다 10배 이상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내시고 ‘번만큰 크게 써야 한다’는 넉넉한 나눔에 인식하지 않았던 제주에서 사업을 일군 여성CEO의 ‘외로움’은 매 순간 어렵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온 삶을 표현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 40년을 특집으로 다뤘다. 김만덕을 역사에 기록한 사람들은 정조, 채제공, 이가환, 박재가에 이어 다산 정약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늘이 맺어 준 인연인 김만덕과 정약용의 만남은 천주교 박해로 인해 무대가 제주도로 건너와 대정으로 귀양간 정난주, 추사 김정희로 이어졌다.

‘제 탐라 기 만덕 소독 진신대부 증별시권(題耽羅妓萬德所得播紳大夫贈別詩卷)’은 다산의 발문만 전해지고, 책의 소재를 알 수가 없다. 그 책에 글을 써준 대신의 대부분은 정조사후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떠났기에 깊이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주길 간절히 바란다.

김만덕의 한양, 금강산 대장정은 제주해협을 건너 전라도의 나주평야와 제주도민의 생명선이었던 영산강을 지났다. 나주는 제주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역으로 대륙과 연결통로였다.

제주문화탐방은 오름을 조망하였다.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소화산구나 기생화 산인 오름은 산, 봉, 악 등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제주도민의 애환과 추억이 오롯이 간직된 곳이다.

자녀와 함께 읽는 나눔스토리는 설망대 할망, 영등 할망 등 여성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어린이들에게 나눔에 대한 즐거운 기억을 줄 것이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김만덕기념관을 찾아서 김만덕의 도전과 용기, 나눔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였다. ‘김만덕 나눔의 쌀’은 퍼주어도 줄지 않는 마법의 뒤주처럼 사랑을 담은 따뜻한 손이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빛이 되고 있다.

탐라의 기 만덕이 얻은 진신대부의 증별시권(贈別詩卷)에 제함

여유당 정약용

을묘년(1795)에 탐라(耽羅)에 흥년이 들었는데, 만덕(萬德)이 의연금(義捐金)을 내어 구원하여 주었다. 그의 소원이 금강산(金剛山)을 구경하고자 함이었는데, 임금의 분부로 소원을 들어 주게 하였다.

병진년(1796, 정조 20) 가을에 탐라(耽羅)의 기(妓) 만덕(萬德)이 역마(驛馬)로 서울에 불러왔고, 이듬해 봄에 만덕이 금강산(金剛山)에서 돌아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좌승상(左丞相) 채공(蔡公 채제공(蔡濟恭))이 그를 위해 소전(小傳)을 지어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므로 나는 덧붙이지 않는다.

나는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적(妓籍)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이 한 가지 기특함이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 두 가지 기특함이고, 바다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그리고 여자로서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驛馬)의 부름을 받았고, 기생으로서 중(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內殿)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다. 아, 보잘것없는 일개 여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지녔으니, 이 또한 하나의 대단히 기특한 일이다.

이 글은 다산 정약용의 시문집 제1집 14권의 문집 /제에 실린 '탐라의 기 만덕이 얻은 진신대부의 증별시권에 제함'이다. 김만덕이 한양에서 채제공을 비롯해 이가환, 박제가 등 당대 대신들로부터 받은 전과 시를 묶은 책에 발문한 것이다.

만덕에 대한 기본정보와 만덕의 세 가지 기이함과 네 가지 희귀함(有三奇四稀)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어 소상하게 기록하였고 이가환은 김만덕의 의로움을 '우레 같이 왔다 고니처럼 날아가는 높은 기풍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막게 하리'는 시를 남겼다. 초정 박제가는 '물결 헤쳐 바람 타고 먼 곳을 찾는 뜻이 대장부만 누릴 일이 아님을 알겠구나'는 시로 칭송했다.

정약용은 김만덕이 여러 선비로부터 받은 시와 글을 정리해 줄 정도로 깊은 교류가 있었지만 진신대부들과 생각과 같다는 '余不贅(덧붙이지 않는다)' 으로서만 적었다. 당시 실질적인 서학의 리더로 가족과 친교를 나눈 이들의 죽음을 마주했으며, 그 역시 항상 생사의 경계에 섰던 다산은 자신의 글에서 가까운 사람에 대한 철저한 자기검열을 통해 비밀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당대 많은 관심을 받은 만덕에 대해 3가지 존경스러운 점과 4가지 드문 일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매우 간결하고 절제된 글이지만 행간에 수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 김만덕이 제주로 가져와 소중하게 간직했을 진신대부의 증별시권(摺紳大夫贈別詩卷)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일부 문신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김만덕에 대한 행적을 전해들을 수 있다.

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乙卯耽羅饑。萬德捐振之。詢其願。金剛山也。有聖旨令如願。

丙辰秋。耽羅妓萬德。驛至京。越明年春。萬德回自金剛。將還其鄉。左丞相蔡公爲立小傳。敘述頗詳。余不贅。余論萬德。有三奇四稀。妓籍守寡一奇也。高貲樂施二奇也。海居樂山。三奇也。女而重瞳子。婢而被驛召。妓而令僧肩輿。絕島而受內殿寵錫。四稀也。嗟以一眇小女子。負此三奇四稀。又一大奇也。

第一集詩文集第十四卷○文集 / 題

정약용 고택 여유당 인근의 두물머리. 다산의 당호인 여유(與猶)는 성급하게 굴지 않고 사리판단을
느그럽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차례 CONTENTS

2019. 12 제4호

From The Editor | 1

서시 | 2

정약용 -제 탐라 기 만덕 소득 진신대부증벌시권

차례 | 4

발간사 | 6

김만덕기념사업회 고두심 상임대표

축사 | 7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

만덕제 | 9

제40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만덕제 봉행 40주년 | 14

1977년 김만덕묘 모충사로 이장

만덕제의 꽃 여성제관

만덕제는 유교식 묘제로 봉제

김만덕상 수상자의 밤 | 20

김만덕기념관을 찾은 수상자와 가족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김만덕과 다산 정약용 | 27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

다산 정약용 연대기

저서로 보는 정약용

김만덕과 정약용의 만남

이재체의 '만덕전'

다산이 밝힌 '겉눈동자'소문의 진상

차례 CONTENTS

2019. 12 제4호

만덕의 제주·한양·금강산 대장정 2 | 39

나주목(羅州牧)

호남의 곡창 - 나주평야

나주평야-영산강, 제주도민의 생명줄

운주사(雲住寺·雲舟寺)

제주문화 답사 4 | 49

제주도민의 삶이 깃든 오름

만덕심판 | 60

(주)월자포장 고추월 회장

자녀와 함께 읽는 김만덕스토리 | 67

허운데기

주요행사 | 77

제3회 김만덕주간 개막식

김만덕 주간 행사

개관4주년 기념 기획전시 '은혜로움다'

나눔특강 '헐크 이만수의 도전과 나눔'

제3회 만덕문화대상

장수효도사진

만덕학교

만덕할머니와 나눔향아리

꿈나무 나눔더하기

신 김만덕객주

후원·기탁 | 109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후원 및 기탁 현황



발 간 사



처음의 마음으로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의 정신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시작한 2019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4호 은광연세(恩光衍世)에는 올 한해동안 김만덕 정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나눔 실천·복합문화공간으로서 펼쳐온 다양한 사업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올 해도 관람객과 도민, 전국 각지의 기부자들이 기부한 사랑의 쌀 나눔 및 제주도내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나눔 교육사업 등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와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문화컨텐츠와 함께 배워보는 만덕학교,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과 김만덕 나눔 큰잔치 등 김만덕주간 행사, 다양한 학술사업과 만덕봉사단의 봉사활동 등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김만덕의 정신을 알리고 실천하며, 김만덕기념관이 문화예술과 교육, 나눔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애정으로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고 두 심**

축 사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恩光衍世(은광연세) 제4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김만덕은 조선 정조 때 제주에 큰 흉년이 닥치자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쌀을 들여와 제주도민을 먹여 살린 의인입니다. 정성이 깃든 나눔과 인류애를 실천한 김만덕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범적인 여인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개척한 김만덕의 도전과 용기, 나눔은 후손들이 계승하고 발전시켜가야 하는 제주의 귀한 가치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도정이 의인 김만덕을 기리기 위해 만덕제를 봉행하고, 김만덕상을 시상한지 40회를 맞이해, 김만덕상 수상자의 밤과 제40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등 뜻 깊은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지난 40년동안 김만덕의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애써주신 김만덕상 수상자, 만덕제 제관, 봉행 지도위원, 그리고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만덕기념관은 지난 2015년 개관 이래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알리고 이웃과 나누며,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일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지속적으로 펼치는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행사는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으며, 건강한 제주를 일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덕소식지 恩光衍世(은광연세)가 김만덕의 정신과 가치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매체가 되고, 제주를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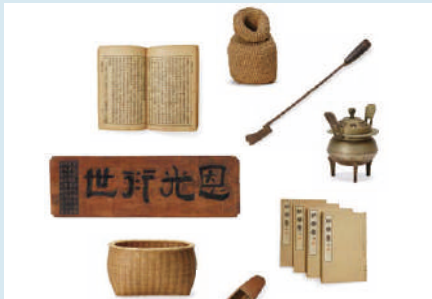
이희룡



은혜의 온 세상에 퍼지다!

김만덕기념관은 전 세계 최초의 나눔문화전시관으로서 의로움과 베품의 상징인 '김만덕'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상설 전시장>, <나눔사업>, <김만덕 선양>,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장



- 김만덕 관련 유물 발굴, 수집, 보존, 학술 자료 발간.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나눔 체험 전시장 운영

전시 기획



- 국내외 유명 작가 초청 기획 전시.
- 만덕문화대상, 문화강좌 시민참여 전시, 나눔전시회

사랑의 쌀 나눔



- 김만덕 사랑의 쌀 후원 접수.
- 제주도내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단체에 쌀 나눔.

교육 프로그램



- 유치원, 초·중고,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나눔 프로그램.
- 찾아가는 기념관: 시의 초등학교, 경로당 방문 교육
- 성인과 가족을 위한 만덕학교 운영

김만덕주간



- 사라봉에서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 나눔큰잔치. 1주일 간 나눔축제를 실시.

만덕문화대상



-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실시.
- 시민참여 전시회를 통한 문화활동을 지원

장수효도사진



- 김만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실시.
- 역사, 문화, 사회 분야의 주제를 정해서 발제 및 토론.

만덕 서포터즈



- 김만덕 관련 유물 발굴, 수집, 보존, 학술 자료 발간.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나눔 체험 전시장 운영

학술세미나



- 18세기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제주의 상황.
- 18세기 제주의 진상제와 상품유통.

제40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제208주기 만덕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주관하는 제40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20일 사라봉 모충사 내 김만덕 묘탑에서 개최됐다.

만덕제는 길트기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

의 헌화 분향, 제례봉행, 분향 순서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만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인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고,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해 1980년부터 김만덕상 시상식과 병행하여 봉행해오고 있다.





제40회 김만덕상 시상식

봉사부문 김영순(71) 경제인부문 박경란(59)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인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고,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해 1980년부터 김만덕상 시상식을 해오고 있다.

김만덕상 봉사부문 김영순 수상자는 1987년 제주양로원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어르신들 급식제공,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 및 물품후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30년간 어

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펼쳐 제주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1호 인물로 등재되기도 했다.

경제인부문 박경란 수상자는 (주)신동아문구 대표로 근로환경 개선 및 지역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학생 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문구류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교복 장학금도 기탁하고 있다.







만덕제 봉행 40주년

사라봉 모충사



김만덕 묘지터 (고으니머루)
Gravesite of Kim Manduk (Gocunimeru)
金万福墓址 (ゴクニメロ)

김만덕의 옛 무덤이 있었던 자리.
훗날 모충사로 옮겨졌다.

1977년 김만덕묘 모충사로 이장

김만덕 7후손의 며느리인 한주월(韓柱月)씨가 어려운 처지에 서도 60년 간 정성껏 돌보던 묘소가 1970년대 들어 김만덕묘

의 주변까지 시가지가 확장되어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해졌다. 1971년 '의인 김만덕기념사업회'(회장 홍정표)를 조직하여 정태무, 김옥봉 이사 등 뜻있는 인사들이 묘소 이장을 추진하였





다. 1976년 5월 제주도민들의 성금으로 모충사가 건립되고 1977년 1월 3일 현재의 모충사로 이장하고 1월 25일 기념탑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모충사에는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와 제주의병항쟁 기념탑, 의녀반수 김만덕 묘탑 3기가 조성되어있다.





만덕제의 꽃 여성제관

1980년부터 매년 한라문화제 때 '만덕봉사상'을 제정하고 만덕제와 시상식을 거행해오고 있다.

만덕제 제관을 여성으로 기안한 당시 시청에 근무하던 김순익 지도위원은 "초기에는 여성제관을 고사하는 바람에 인원을 모

을 수가 없고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청여직원을 대신해서 제관을 시키기도 했다."며 당시를 회고하였다. 퇴직 후에도 40년간 만덕제 봉행에 봉사를 해온 김순익 지도위원과 제19회(1998년) 김만덕상을 수상한 진춘자(김만덕상 수상자 모임회장)회장이 제관을 지도하고 있다.



제관들은 만덕제 일주일 전부터 모여 맡은 제관의 직분에 따른 예절 등을 익히고 서로 호흡을 맞춰 제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각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모인 제관들은 묘탑 앞에서 수없이 절을 하고 예법을 익혀나가느라 힘든 것도 잊고 연습에 열중하였다.

일상에서 큰절을 할 일도 많지 않고 제를 지낼 때 지켜보기만 했는데 막상 직접하러니 어색하고 실수에 쑥스러워하기도 했다. 서로 맡은 직분에 따라 순조롭게 봉제연습이 이루어지고 자신감이 쌓여갔다. 만덕제 이틀 전 평상복으로 연습을 마치고 제관복을 입는 날에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제관입장



봉제선언



헌화 분향



점시례



관세례



참신례



참신례



분향례



헌폐례



초헌례



초헌례(축문)



아헌례



중헌례



진다례



음복례



사신례



분축례



분축례2

만덕제는 유교식 묘제로 봉제

유교식 묘제로 봉제되는 만덕제는 봉제선언에 이어 도지사의 헌화, 초헌관이 차려놓은 제물을 점검하는 점시례, 참여한 제관들이 손을 씻는 관세례, 모든 제관이 신위에게 처음 절하는 참신례, 향을 사르고 폐백을 드리는 분향례와 헌폐례, 첫 술(단술)을 올리는 초헌례, 두 번째 술(백주)을 올리는 아헌례, 세 번

째 술(청주)을 중헌례, 차나 송농을 올리는 진다례, 제상 위의 술과 포를 마시는 음복례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관 모두가 신위에게 절을 하는 사신례로 제를 마친다.

만덕제에 참여하는 여성 제관은 신위에 술을 올리는 초헌관, 아헌관, 중헌관이 있고 축문을 읽는 대축, 분향할 때 향함을 받드는 봉향, 헌관으로부터 술잔을 받아 신위에 올리는 전작, 분향



만덕제 40주년 유공자 표창. 왼쪽부터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진춘자 여사, 김순익 지도위원



할 때 화로를 담당하는 봉노, 술잔을 받드는 봉작, 제주 두루미를 맡아 술을 잔에 따르는 사준, 집례가 읽는 홀기(의식절차를 기록한 식순)를 창하는 찬자, 헌관을 모시는 찬인, 홀기를 부르며 예를 집행하는 집례 등 12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만덕제는 초헌관 오정희 (김만덕상수상자회), 아헌관 김성자(김해김씨종친회 부녀회), 종헌관 송금순(덕희봉사단)이고 대

축 좌동열(제주 문화관광해설사협회), 봉향 정미순(도 새마을부녀회), 전작 조영숙(김만덕기념사업회), 봉노 박명순(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봉작 고순희(도 여성단체협의회), 사준 백봉림(여성중앙회 제주지부), 찬자 오혜숙(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찬인 이은아(소롭티미스트 제주클럽), 집례 문성희(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제관으로 참여하였다.

김만덕상 수상자의 밤

제40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기념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를 초청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주관하는 제40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기념 '김만덕상 수상자의 밤' 행사가 19일 저녁 6시에 제주 칼호텔 무궁화홀에서 진행됐다.

'김만덕상 수상자의 밤'은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을 기념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나눔실천에 앞장서 온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박세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영상시청 ▲표창패 수여 ▲원희룡 지사 인사말(임태봉 도보건설지여성국장 대신) ▲한영진 도의원 축사 ▲진춘자 김만덕상 수상자회 회장 인사말 ▲양원찬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인사말 ▲강윤형 원희룡 지사 부인 인사말 ▲제라진 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단체사진 촬영 ▲만찬 ▲가수 오다검 축하공연 순으로 행사를 마

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 봉사 49명 중 현재 생존자 36명 중 도내 외 및 해외의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들 20여 명이 참석했다.

진춘자 김만덕수상자회 회장과 김순익 만덕제 지도위원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로 김만덕상 수상자인 진춘자(19회 수상), 양화순(20회 수상), 김문자(24회 수상), 전귀연(27회 수상), 이정자(28회 수상), 한월자(29회 수상), 김순심(30회 수상), 오정희(30회 수상), 김부자(31회 수상), 김주숙(33회 수상), 강혜진(34회 수상), 송경애(34회 수상), 강명순(36회 수상), 강난파(38회 수상), 강옥선(38회 수상), 강영희(39회 수상), 좌옥화(39회 수상) 씨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임태봉 도보건설지여성국장, 한영진 도의원, 강윤형 원희룡지사 부인, 김만덕 본정 6대손 김균 선생, 김순익 만덕제 지도위원 봉사자,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원장, 임민희 제주여성경



제인협회장, 김주언 김해김씨좌정승공파종친회장, 김용석 도
헌공파종문회장, 임현수 만덕로타리클럽 회장과 회원, 제38
회, 39회 만덕제 제관, 양원찬, 문영자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
대표, 김상훈 김만덕기념관장 및 기념사업회 이사, 김정임 제
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장, 현정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
군인회여성회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임애덕 애서원
장, 강명순 연갤러리 관장, 오영한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정책
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태봉 국장이 대독한 원희룡 지사의 축사에서 “매년 2명의 수
상을 배출하고 올해까지 49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며 “아시
다시피 정조때 제주에 흥년이 닥치자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인류애를 실천해 대한민국과 세계에 여성상과 제
주의 정신으로 이어져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참석하신 수상자들과 직접 만남으로 의인이 남긴
봉사의 정신과 숨결이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 자리가

나눔의 가치가 이어져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기
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관장은 “김만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
블리주의 표상이며 김만덕상 수상자들은 김만덕의 정신을 이
여받아 이를 몸소 실천해 오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행사
를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역대
수상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1980년 ‘김만덕 봉사상’을 조례로 제
정하고 매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여성을 발
굴하여 ‘김만덕상’을 시상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봉사부문
40분, 경제인부문 9분 총 49분이 수상했다.

김만덕의 업적을 기리는 ‘제40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
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사라봉 모충사 내 김만덕 묘
탑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제주 강정림 기자〉

김만덕기념관을 찾은 수상자와 가족



김만덕기념관을 찾은 김만덕상 수상자와 가족들은 기념관을 돌아보며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3층 김만덕수상자의 영예의 전당에 게시된 자신의 세션을 보며 천진한 미소를 띠며 감격해했다. 진춘자 김만덕상 수상자 모임 회장은 “그동안 제주에 사는 분들과 식사도 하고 만덕제에

참여해왔다. 매달 회비를 모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고 성금을 내왔는데 육지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많은 분을 뵈니 반갑다. 저보다 앞서 상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앞으로 기력이 있는 동안이라도 수상자로서 만덕제만은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제40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기념 김만덕의 후예라는 명예로 봉사의 삶을 이어가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1회 고수선 2회 고혜영 3회 이창옥 4회 조금숙 5회 이옥이 6회 김서옥 7회 성귀랑 8회 고춘옥 9회 김경생 10회 오태인
11회 김순이 12회 김진현 13회 홍정형 14회 박희순 15회 문초실 16회 장옥순 17회 고경자 18회 메리 스타운톤

김만덕상 수상자 고수선 제1회 1980년 수상 · 병원 개업 후 무료 진료 · 한글무용감소스 설치 · 불우한 이웃을 위해 실시모자임 · 중약보육원 설립 	김만덕상 수상자 고혜영 제2회 1981년 수상 · 안중계광운동 · 여성지위향상에 기여 	김만덕상 수상자 이창옥 제3회 1982년 수상 · 43 경비대 형사 및 세력 형사 · 마을공사(다다, 세화공사) 및 고아양육 
김만덕상 수상자 조금숙 제4회 1983년 수상 · 원아보 / 재향예측된 병상 치아소설집 문헌 · 책가방 할아버지 공제소 설치 · 소외된 보훈운동 전개 	김만덕상 수상자 이옥이 제5회 1984년 수상 · 여성복지회와 여성복지향상에 기여 · 작업장소년 17명 국악주 지면 · 무민촌전달원 구성 및 무료 진료 	김만덕상 수상자 김서옥 제6회 1985년 수상 · 여성 한병 피치 및 여아(교실) 운영 · 초·중학교 교사 지원 활동에 기여 
김만덕상 수상자 성귀랑 제7회 1986년 수상 · 마을 휴게처 및 여인이 놀이터 만들기 · 기동차로 이동 진료 및 공복한자 개회 	김만덕상 수상자 고춘옥 제8회 1987년 수상 · 부로 김자를 통한 지역인 교육봉사 · 저축 금과 및 기성대에 실한 선도 · 자선보훈활동 전개 	김만덕상 수상자 김경생 제9회 1988년 수상 · 불우아동 양육 · 관공상에 간수화 및 미산(미산문화)에 봉양함 
김만덕상 수상자 오태인 제10회 1989년 수상 · 재한가부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 보훈회 개최, 향토사 박물관에 헌신(헌신) 등 · 국가사립에 기부 등 	김만덕상 수상자 김순이 제11회 1990년 수상 · 재한가부를 통해 지역인 복지향상에 기여 · 약아소 운영, 마을사업 운영 지원 · 불우교차량 등 복지개선 등 	김만덕상 수상자 김진현 제12회 1991년 수상 · 불우 아동을 위한 교양원 설립 및 운영 · 여성운동의 선구자적 역할 담당 
김만덕상 수상자 홍정형 제13회 1992년 수상 · "금산아침이슬" 설립 및 운영 · 마을 단위로 도장 · 여성단체 조직 강화 및 사회봉사활동 	김만덕상 수상자 박희순 제14회 1993년 수상 · 김가리교회에 수종을 시작으로 보육원 문헌 · 400여년 동안 불우 이웃 영육 	김만덕상 수상자 문초실 제15회 1994년 수상 · 여성계몽운동 및 불우아동 지원 · 책가방을 기부, 불우노인 수목 기증, · 소년소녀가장 중재4대 공헌 지원 등 
김만덕상 수상자 장옥순 제16회 1995년 수상 · 여성단체활동 및 6개 읍면 간이유계소 설치 · 마곡에서 전역과 무관(매주 선다) 등 · 관내 및 근교 진료 	김만덕상 수상자 고경자 제17회 1996년 수상 · 노인교육봉사 · 지역발전과 여성문제해결에 기여 · 불우유치원 설립 및 운영(2007년, 2010년 등) 	김만덕상 수상자 메리 스타운톤 STAUNTON-MARY 제18회 1997년 수상 · 소외계층 지원 및 교회봉사 · 유언으로 '김만덕' 설립(김만덕 임무) 등 · 무의탁 유언으로 노년 돌봄 지속적 봉사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19회 진춘자 20회 양화순 21회 김태화 22회 김순자 23회 고길향 24회 김문자 25회 고추월 26회 김인순 27회 전귀연
27회 김정 28회 이정자 29회 한월자 29회 유양선 30회 김순심 30회 오정희 31회 김부자 32회 김순여 33회 김주숙

김만덕상 수필작
진춘자
제19회 | 1999년 수상



관내 과두부사 지원 및
불우 노인세대와 생활을 간담
재활을 베풀어 판해수익금 기부
사회복지사업에 후원함과 영구 기탁

김만덕상 수필작
양화순
제20회 | 1999년 수상



재활을 수습 및 생활미인 운영 수익금 기탁
제직공무 파누 25년
불우 노인 지원 및 수당 미납비 등 기부

김만덕상 수필작
김태화
제21회 | 2000년 수상



불우아로 지원 및 지역발전에 기여
지역노년자빈봉사회 구성 및 봉사활동

김만덕상 수필작
김순자
제22회 | 2001년 수상



재민(법)원장재단 설립 및
제주출신 학생 장학금 지급
불우아로 및 노인 지원

김만덕상 수필작
고길향
제23회 | 2002년 수상



불우아로, 보육원 및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며 불우 계급 지원

김만덕상 수필작
김문자
제24회 | 2003년 수상



한국복지재단(재)주거부 주부후원회 조직하여
불우아로 장학금 봉사 및 후원
불우아로 주거환경 조성 지원

김만덕상 수필작
고추월
제25회 | 2004년 수상



학비 지원 및 장학금 기부 등을 통한
지역민자 복선 활동
다양한 봉사회 활동을 통한 영구 기탁

김만덕상 수필작
김인순
제26회 | 2005년 수상



간담 상담 및 의료봉사
지역 사회단체 활동하여 영구 기탁 및 지원

김만덕상 수필작
전귀연
제27회 | 2006년 수상



불우청소년 지원, 무한한 자원봉사활동과
국제봉사활동
각종 장학 및 영구 기탁

김만덕상 수필작
김정
제27회 | 2006년 수상



강원문화재단 건립 및 서귀포시에 기증
지역 회관 및 학교 무자 기부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

김만덕상 수필작
이정자
제28회 | 2007년 수상



정주학을 설립 및 소개하여
불우청소년 교육봉사

김만덕상 수필작
한월자
제29회 | 2008년 수상



불우학생 및 장애인 시설 지원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회관 가꾸기 등 이문사랑 활동 실천

김만덕상 수필작
유양선
제29회 | 2008년 수상



“영광 가는 길에나”
동양선장학회 설립 및 도서·기금 등 기부

김만덕상 수필작
김순심
제30회 | 2009년 수상



경로당 독거노인 무료 급식활동
소외 청소년 등교이 활동

김만덕상 수필작
오정희
제30회 | 2009년 수상



참학관 등 후원사업
식물원사·미혼도 돌봄 사업 지원 등
지역 봉사활동

김만덕상 수필작
김부자
제31회 | 2010년 수상



독거노년 장애인 돌봄 및 간담간이 지원
가정봉사단 호스피스 활동하며
생활을 지원 및 봉사활동

김만덕상 수필작
김순여 제법스님
제32회 | 2011년 수상



암암 지역회관 설립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부미학노년수용원(재)불우아로 등
무료 점심 제공 및 봉사활동

김만덕상 수필작
김주숙
제33회 | 2012년 수상



설거지봉사단 창립 후 교육봉사 및
무죄급식소 운영
교육사업 및 자선활동을 위한 모금 지원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33회 신언임 34회 강혜전 34회 송경애 35회 홍영선 36회 강명순 37회 전해성 37회 전정숙 38회 강난파 38회 강옥선
39회 강영희 39회 좌옥화 40회 김영순 40회 박경란



만덕상 수상자와 역대 수상자들 (2018년)



김만덕과 다산 정약용

하늘을 받들어 백성을 보듬다

정조가 조선의 중흥기를 이끈 시기에 노련한 정치가인 채제공과 대학자 이가환이 좌우를 보좌하였고 다산은 험한 일을 앞서 처리하는 돌격대장이었다. 정조는 천주교로 생사의 기로에 선 다산을 끝까지 감싸주며 곁에 두었다. 다산이 김만덕을 만난 때는 화성이 완성되고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간 30대였다. 김만덕이 명문대가들로 받은 시와 글로 엮은 '탐라기만덕소득진신대부증별시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에 발문을 썼다. 여유당전서에도 수록하여 오늘날까지 김만덕에 대한 의로운 정신과 발자취를 전해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남긴 정신과 삶에 대해 알아본다.

김만덕 - 정약용 - 김정희로 이어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김만덕기념관에서 만나 오늘도 수많은 나눔과 이웃사랑이 되어 희망의 빛으로 새롭게 펼쳐나가고 있다.



정약용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을 이루는 두강(斗江)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은 실개천인 소천의 끝자락, 한강과 마주하고 있다. 두 물이 어우러져 한 물로 흐르는 이곳은 그가 펼쳤던 학문과 사상이 실학으로 집대성되었다.

그는 한강을 옛이름인 열수(洌水)라고 불렀다. 1776년(영조 52) 15세에 관례와 혼례를 치르고 곧장 한양으로 분가하면서도 마음은 늘 고향에 남아 있었다. 1818년(순조 18) 강진에서 돌아온 이후 자신의 호도 '열수옹(洌水翁)' '열초(洌樵)'라 하여 한강의 사람임을 드러냈다. 그리고 고향 마현에서 18년을 더 살다가 한강에 잠들었다.

다산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로 무수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한강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발견하였다. 평생의 고민이자 꿈은 민생을 위한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의 종합을 통한 부국강병이었다.

그가 떠나고 산하의 변천을 거듭한 오늘, 우리는 한강에서 품었던 다산의 삶과 꿈을 떠올려본다.



조선왕조 오백년사 최대의 천재적 지식인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



여유당(與猶堂)

정약용의 당호(堂號)인 여유당은 1800년(정조 24) 봄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집이다. 현재 건물은 1925년 홍수로 유실되었던 것을 1986년 복원하였다. 집인 여유당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남겼다. “나는 나의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다. 용기는 있으나 일을 처리하는 지모가 없고 착한 일을 좋아하는 하나 선택하여 할 줄을 모르고, 정에 끌려서는 의심도 아니 하고 두려움도 없이 곧장 행동해 버리기도 한다.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도 참으로 마음에 내키기만 하면 그만 두지를 못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에 담겨 있어 개운치

않으면 기필고 그만 두지를 못한다. ... 노자의 말에 여(與)는 겨울의 냇물을 건너는 듯하고 유(猶)는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하다는 말은 내 성격의 약점을 치유해 줄 치료제가 아니겠는가.”

1799년(정조 23)은 정약용에 대한 노론의 공격이 극에 달했다. 이는 남인의 주장 번암 채제공이 운명한 해이기도 하다. 정조의 정약용에 대한 신뢰가 커져 재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듬해 가족과 함께 집에 '여유당'이라는 현판을 붙이고 은신하였다.

양수대교

산 묘소

실학박물관

조선왕조 오백년사 최대의 천재적 지식인

다산 정약용 연대기

1762.06.16 (1세)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現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정재원의 넷째아들로 태어남.

1776 (15세)

홍화보의 딸과 혼인함 (02. 22)

아버지 정재원이 다시 벼슬길에 올라 한성으로 이사함.

이익의 성호사설을 읽고 실학에 뜻을 둠.

1783 (22세)

소과에 합격하여 진사가 됨

1784 (23세)

정조에게 중용을 강론함

1789 (28세)

대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오름.

1790 (29세)

나라에서 금지하는 서학(천주교)에 연류되어 해미로 귀양가지 만 곧 풀려남.

1792 (31세)

홍문관 수찬이 됨.

수원 화성을 연구한 수원성제(水原城制)를 지음

1794 (33세)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어 연천지방을 돌아 봄.

1797 (36세)

황해도 곡산도호부사가 되어 어진 정치를 베풀.

천연두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마과회통》을 지음

* 김만덕 상경(1796-1797)

‘탐라의 기, 만덕이 얻은 진신대부의 증별시권에 제함’ 발문과 김만덕의 중동에 대한 글을 씀.

1801 (40세)

신유사옥 때 경상도 장기(포항)로 귀양감. (02.27)

황사영 백서 사건 연루,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감. (11.05)

1808 (47세)

다산이라는 호를 쓰고 책을 쓰기 시작함.

1817 (56세)

《경세유표》 40권을 완성함

1818 (57세)

《목민심서》 48권을 완성함.

귀양에서 18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옴.

1819 (5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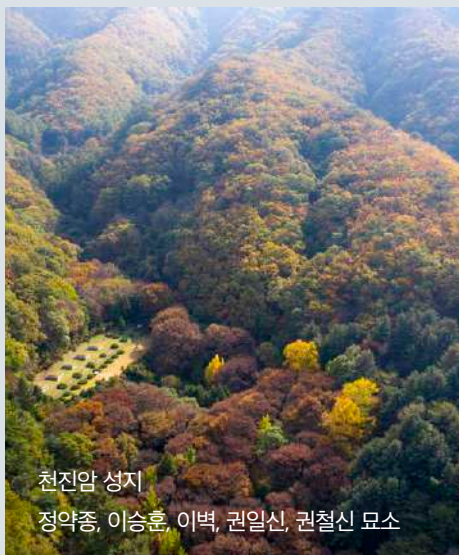
《흙흙신서》 30권을 완성함.

1836 (75세)

세상을 떠남.



자료: 다산기념관



천진암 성지
정약중, 이승훈, 이벽, 권일신, 권철신 묘소

다산과 천주교

주어사 천진암 강학은 천주교회의 기원을 열었다. 성호학파의 권철신, 성호 이익, 김원성, 이존창, 홍낙민,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등이 자주 천진암을 찾아 하늘과 세상, 인간의 삶, 성현의 윤리서와 철학, 수학, 종교와 관련된 서학서를 연구 토론하였다. 천주 교리의 초보적 이론과 죄를 극복하는 칠극 등을 연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다산은 조선 천주교회의 태동에서 참혹한 박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벽은 큰형수의 동생이었고 조선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은 누나의 남편이었다. 형인 정약중은 평신도 대표로 '주교요지' 교리서를 썼다. 다산의 형수 유소사와 조카 정정해 그의 아들인 정하상은 모두 순교하여 가톨릭교회의 성인품에 올랐다. 형 정약현의 딸 정난주는 황사영의 아내로 제주도 대정으로 관비가 되어 유배를 왔지만 '서울할머니'로 존경과 사랑을 받다가 모슬포 뒷산에 묻혔다. 조상제사를 거부한 윤지충은 다산과 사촌 간이다.

다산은 정조의 총애로 이미 죽었을 목숨을 보전하였지만 정조 사후 1801년 신유사옥 때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형에 처해졌다.

저서로 보는 정약용

10대 - 선몽대 시판

1780년(정조 3) 정약용은 부친을 따라 선몽대를 방문하여 7대조 정호선(1571-1633)의 선몽대시를 보고 옮겨 적어 나무에 새긴 시판(詩板)이다. 19세인 정약용은 선몽대의 경치에 찬탄하고 주인과 우정을 나누는 즐거움과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일에서 떠나 선몽대에서 유자적하고 싶다는 심정을 담았다.

20대 - 시험 답안 '오객(五客)'

규장각 초계문신이 되었을 때 제출한 답안이다. 다섯 가지 종류의 새를 비유하여 겸손하고 검약할 것을 표현하였다.

30대 - 죽란산인 시

1794년(정조 18) 한양 죽란서옥에서 죽란사(竹欄社)라는 시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무렵 채제공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마음을 읊고 있다.

40대 초 - 절학가

유배지에 도착하여 아전들의 자제를 가르쳤다. 향상이라는 제자가 병에 걸려서도 학문에 힘쓰는 그를 대견하게 여겼다.

40대 말 - 하피첩

1808년부터 1810년까지 강진에서 유배 중에 아들에게 경계의 글을

보냈다. 흥씨 부인이 혼인할 때 입었던 옷에 글을 쓰고 하피첩이라고 하였다.

50대 초 - 매화병제도

시집보내는 딸에게 준 선물이다. 매화나무 가지위에 두 마리의 새는 부부의 화락한 결혼 생활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50대 후반 - 천우기행권

유배에서 풀려 한강 여행을 한 기행문이다.

60대 - 증다산제생

다산의 제자들이 다신계를 맺고 우호를 다졌다. 고향 마재로 돌아온 스승을 찾아 인사를 하기도 했다. 다산은 독서와 실천정신을 강조하였다.

70대 - 노학자의 학구열

70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학문을 탐구하였으며 책을 읽는 것보다 글을 짓는 것이 더 공부가 되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하였다.

75세 - 생애 마지막 편지

스승의 회혼례에 참석하려고 강진에서 올라온 제자가 돌아갈 때 여비와 책, 벼루 등을 주며 학문을 놓지 말기를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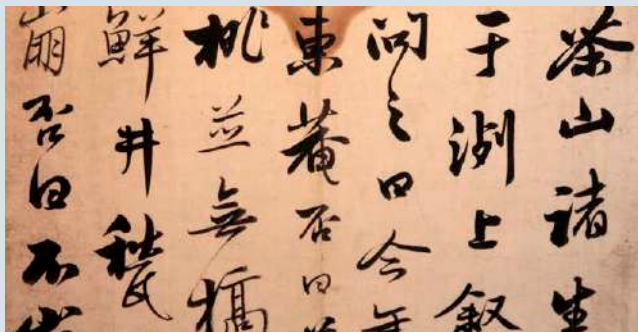
선몽대 시판 (위)



시험 답안 '오객(五客)'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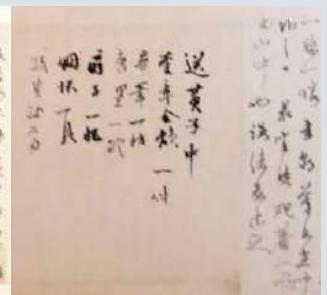
부인 흥씨의 혼례복에 아들에게 경계의 글을 쓴 하피첩



증다산제생



노학자의 학구열



생애 마지막 편지

김만덕과 정약용의 만남

조선 여성경제인 자선가와 천재적 지식인

1796년 7월 28일 제주를 떠난 김만덕은 4개월 후인 1796년 11월 25일 행수의녀가 되어 정조를 알현했다는 기사가 정조실록과 일성록에 등장한다. 정조는 초계문신들에게 만덕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였다. 거중기 등을 발명하는 등 화성축성에 참여했던 정약용은 30대의 혈기왕성한 정조의 신망 두터운 관리였다. 정약용의 저술을 집대성한 문집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는 '제 탐라 기 만덕 소독 진신대부 증별시권(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이 실려 있다. 정약용은 글의 서두를 '을묘년(1795년) 탐라의 대기근에 만덕이 의

파란만장한 김만덕의 의로운 삶을 기록하였다.

네 가지 희귀함으로는 이가환이 60대의 나이에도 40대와 같다고 그의 시에 소개하듯이 정약용도 김만덕의 외모 중에서 겹으로 된 눈동자(중동, 重瞳)를 첫 번째로 꼽았다. 김만덕의 눈은 여성이면서 겹눈동자다(女而重瞳子)라는 글이 의학적으로 눈동자가 두 개라는 것 인지, 중국 고대의 귀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들어 김만덕의 외모가 출중하다는 뜻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다. 정약용이 김만덕의 눈을 살필 정도로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김만덕 기록이 담긴 여유당전서



다산이 쓴 천주교 교리서

연금을 내어 수많은 제주백성을 구원했으며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다는 김만덕의 소원을 정조가 명하여 이루어줬다'로 시작한다. 이어 김만덕이 병진년(1796년) 가을에 한양에 도착했으며 이듬해 봄에 금강산을 다녀왔으며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위해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어 주었다고 소개하였다.

정약용은 김만덕에 대해 세 가지 모범적인 일로 '어린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기적에 올랐지만 홀몸으로 수절하며 사업에 성공한 불굴의 의지와 도전으로 번 재화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내놓은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섬에 살면서도 산을 좋아하는 여성'이라는 점으로

신분제가 철저히 지켜지던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역마는 관리들이 공무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양민인 김만덕이 임금으로부터 역마를 제공받아 한양을 방문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제주목사로부터 제주도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으로 굶어죽는 백성이 많고 역병까지 돌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규휼 곡식을 실은 배를 급파하지만 이마저도 침몰하여 매우 상심한 때에 김만덕이 육지로 배를 보내 곡식을 구해 제주백성의 목숨을 살렸다는 소식에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쁜 마음으로 치를 수 있었기에 여성의 출도금지령도 엄격한 역마의 이용제한을 넘어서 파격적인 왕명으로 김만덕을 배려하였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6.8 × 26.3. 김만덕기념관 소장

『여유당전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의 저술을 총 정리한 문집이다. 이 중 만덕의 중동(重瞳)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기록한 '중동변'은 『여유당전서』 권12의 '변(辨)'에 수록되었다. 또한 『여유당전서』 권14의 '제(題)'에 수록된 「탐라 기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에서는 만덕에게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승려는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금강산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참여하여 나라를 구했기에 의승군(義僧軍)으로 발전하여 요역과 경비 등을 담당하여 관군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

비록 한때 기적에 올랐던 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기가 충천한 승군이 기녀 출신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도 가마에 태워 금강산 여행을 함께 했다는 것은 그 스님들에게 김만덕은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로 예우했다고 볼 수 있다.

정약용은 절해고도의 여인인 김만덕이 내전의 사랑과 선물을 받았(絶島而受內殿寵錫)기에 대단한 일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맺는다. 섬에서 태어난 여인으로서 임금과 내전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건 김만

덕의 선행으로 맺어진 인연이었다. 30대 조선의 천재 지식인이자 관료이면서 사도요한이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신자였던 정약용과 신망애(信望愛)를 두루 갖춘 존경스러운 제주여인 김만덕과의 만남 또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었다.

처음이자 단한번의 상경으로 귀한 인연을 간직한 김만덕은 1797년 가을 한양에 머물며 편한 생을 보내라는 이가환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주로 돌아왔다. 한양에서 돌아온 지 불과 2년 만에 채제공이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1800년 8월에 하늘같은 정조의 승하, 연이어 1801년 정순황후의 신유사옥으로 300명이 훨씬 넘는 신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형을 받았다.

다산을 포함해 이가환, 이승훈, 홍낙민, 권철신, 정약중, 정약전, 이기



이벽



이승훈



정약중



홍낙민



황사영



충청북도 제천의 배론. 초가집이 신학교이다. 황사영은 뒤쪽 토굴에서 숨어지내다가 체포되었다.



황사영 묘 (경기도 양주시 장흥의 가마골).



정난주의 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통일리).

양 등이 체포되어 군문 과정에서 대부분 옥사하거나 처형되고 다산과 둘째 형 약전만 유배형을 받았다. 다산의 조카사위인 황사영이 충청도 제천의 배론에서 체포되고 북경에 전달하려던 백서(帛書)가 발각되면서 반역죄인이 되어 능지처사형을 당하고 그의 부인이자 정약용의 조카 정난주는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지아비를 잃고 두 살 난 아들 황경한을 데리고 대정의 노비가 되어 유배길에 올랐다. 황사영(알렉시오)과 정난주(마리아)는 다산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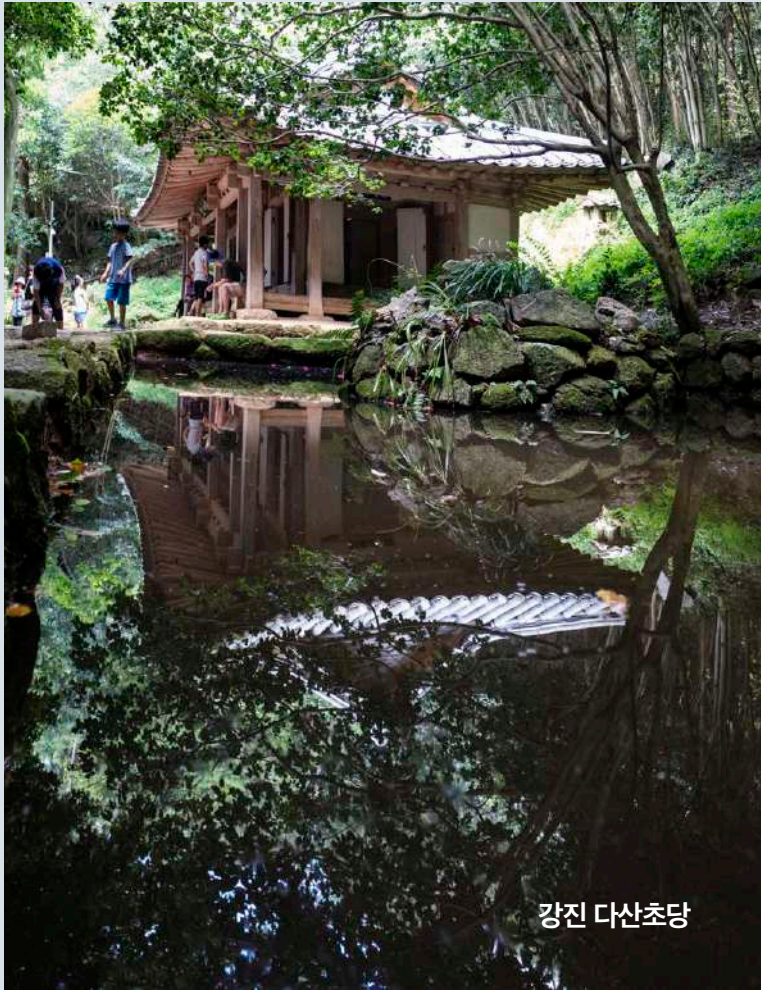
가족을 잃고 희망도 사라진 박해 속에서도 아들 황경한은 선원들의 도움으로 추자도에 내려져 양부모를 만나 성장하여 그 후손들이 추자도에 살고 있다. 정난주는 아들을 그리며 37년간 비록 관노였지만 대정주민들의 '한양 할머니'로 존경을 받고 살다가 1838년 병환으로 숨을 거두고 이웃들은 그 유해를 모슬포 뒷산에 안장하였다. 황사영의 묘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18-25(가마골)에 있다. 두 부부의 묘는 각각 경기도와 제주도에 위치하며 그 사이의 추자도에 아

들 황경한이 잠들어 있다.

1797년 정약용과 만남 이후 김만덕의 행적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제주에 유배온 정난주와 추자에서 양민으로 삶을 이어간 황경한의 이야기에서 김만덕과 제주도민의 보이지 않은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김만덕은 1812년에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아름답게 생을 마쳤다. 정약용은 1836년에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여유당에서 돌아가고 묻혔다. 두 분이 이 땅을 떠난 후인 1840년 추사 김정희가 제주로 유배를 와서 김만덕의 후손을 만났다.

정약용과 김정희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학자이자 예술가이다. 김정희는 정약용을 아주 존경했고 편지를 주고받았다.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서 머물던 다산초당에 걸린 현판과 다산초당에 정약용이 지내던 방 동암에 걸린 현판 모두 추사 김정희의 글씨이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김정희는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정학유와 교류를 맺고 지냈다.



강진 다산초당



추사 김정희가 쓴 현판(위)과 영정(아래)



은광연세(恩光衍世) 98.0 × 31.0. 김만덕기념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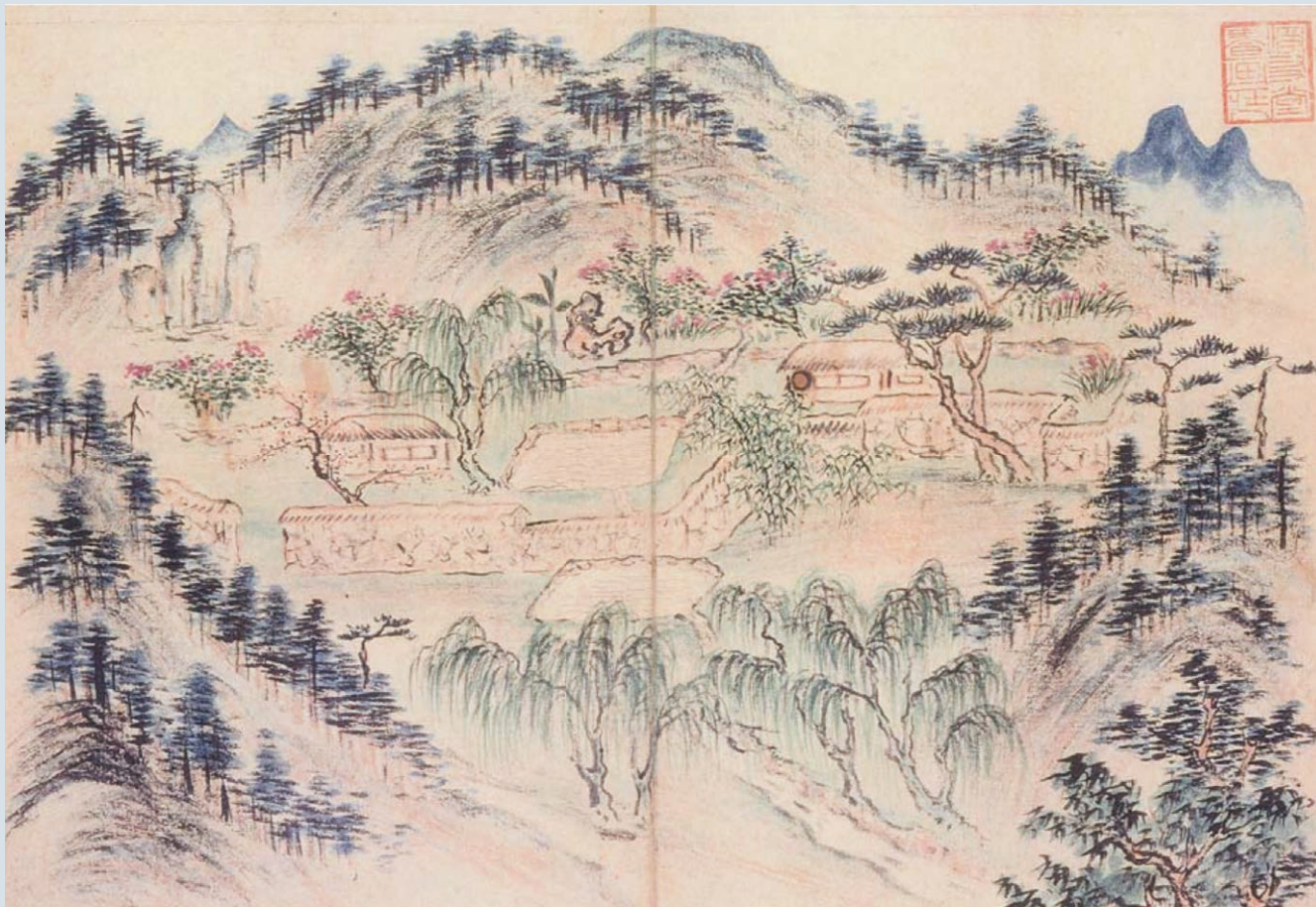
김만덕 6대손 김균 기증.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뜻이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추사가 제주에 유배 왔을 때 제주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기를 대기근에 처한 제주도민

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은 의인 김만덕이 세상떠난 지 30년이 넘도록 칭송받자, 그의 선행을 기려 3대손인 김종주에게 써줬다고한다.

추사 김정희는 편액에 정성스럽게 '은광연세(恩光衍世.당신이 베푼 은혜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를 적어 손자 김종주에게 주었다. 2015년 5월 김만덕기념관이 개관하고 국민들의 성금으로 여류당전서 전질을 소장하게 되었고, 김만덕 6대손인 김균선생이 가보로 전

해온 김정희의 은광연세 편액을 기증하였다.

김만덕 - 정약용 - 김정희로 이어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오늘날도 수많은 나눔과 이웃사랑이 되어 희망의 빛으로 새롭게 펼쳐나가고 있다.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초당도

이재체의 ‘만덕전’

이재체의 ‘만덕전’에는 김만덕이 서울에 머물 때의 일화 두 가지를 기록했다. 첫 일화는 서울의 악소배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과부라고 하여 만덕에게 바짝 접근했다. 그러자 만덕은 “내 나이 쉰이 넘었다. 저들은 내 얼굴을 곱게 봐서가 아니라 내 재물이 탐나서 저런다. 굶주린 자를 구할 여유도 없는데 어느 겨를에 저런 당자를 살찌우랴?”라며 거절했다. 세상사는 곳에는 언제나 남을 등치려는 사람이 있는데 만덕은 의연하게 대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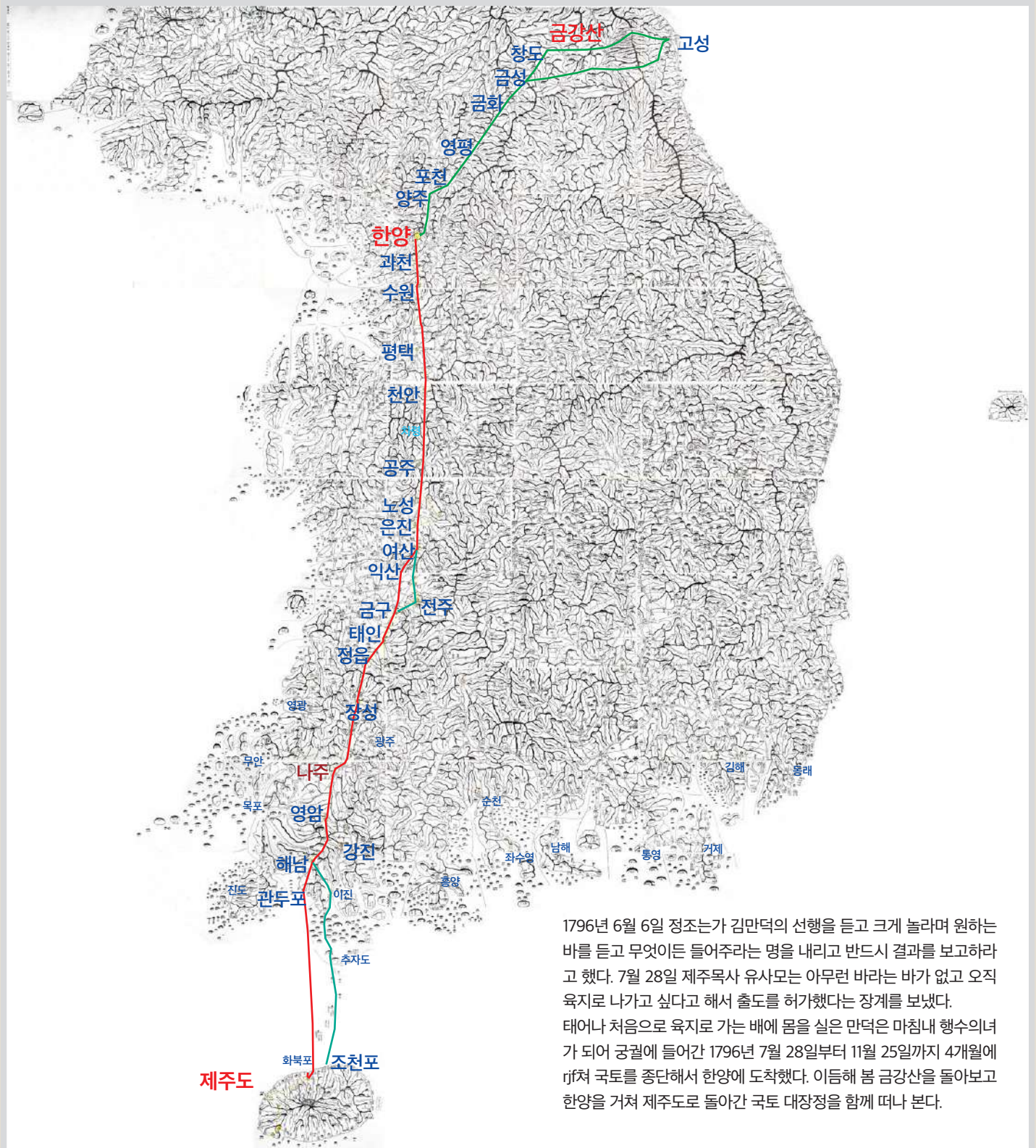
두번 째는 만덕의 겹눈동자에 대한 일화이다. 만덕은 의협의 풍모가 넘쳐난다. 만덕이 얼마나 파란을 일으켰는지는 만덕이 겹눈동자의 소유자란 소문에서도 알 수 있다. 만덕의 눈 한 쪽이 겹눈동자라는 소문이 서울에 널리 퍼졌다. 겹눈동자는 한 눈에 눈동자가 두 개 들어간 것으로 역사적으로 성인인 중국 고대의 순임금과 진한 교체기의 항우가 있다. 박제가와 조수감 등은 그가 겹눈동자를 지닌 특이한 상을 지녔다고도 말했다.

다산이 밝힌 ‘겹눈동자’소문의 진상

이 소문이 크게 확산되자,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다산이 사실을 확인해보려고 만덕을 자기 집에 불렀다. 확인해 밝힌 뒤에 ‘겹눈동자의 변증’이란 한 편의 글을 썼다. 그 글에서 다산은 만덕이 물건을 두 개로 보지 않고, 가까이서 그의 눈을 보니 흑백의 정동이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겹눈동자란 헛소문임을 밝혔다. 만덕 자신도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 다산은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횡행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허탄함을 좋아하여 스스로 바보가 된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뜬소문이 떠돈 것은 만덕이 일으킨 소동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한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은 김만덕에 관한 글에서 “조선시대에 섬 여인 나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 몇이었을까요. 재산을 기꺼이 배고픈 사람에게 베풀 덕으로 김만덕은 그렇게 유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면 꽃다운 이름을 천추(千秋)에 전한다던 다산의 말씀이 실감납니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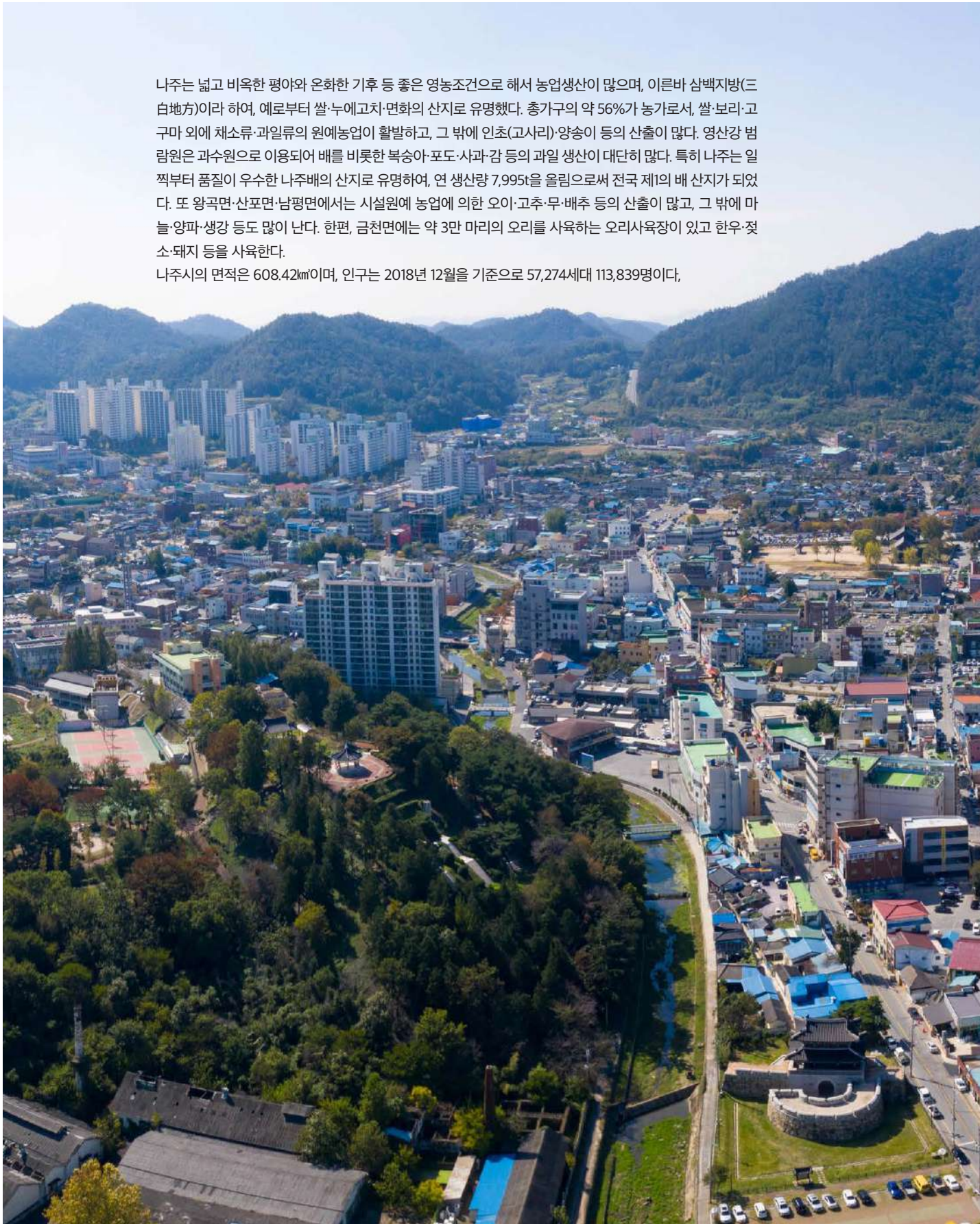
만덕의 제주·한양·금강산 대장정 2



1796년 6월 6일 정조는 김만덕의 선행을 듣고 크게 놀라며 원하는 바를 듣고 무엇이든 들어주라는 명을 내리고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7월 28일 제주목사 유사모는 아무런 바라는 바가 없고 오직 육지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출도를 허가했다는 장계를 보냈다. 태어나 처음으로 육지로 가는 배에 몸을 실은 만덕은 마침내 행수의녀가 되어 궁궐에 들어간 1796년 7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4개월에 걸쳐 국토를 종단해서 한양에 도착했다. 이듬해 봄 금강산을 돌아보고 한양을 거쳐 제주도로 돌아간 국토 대장정을 함께 떠나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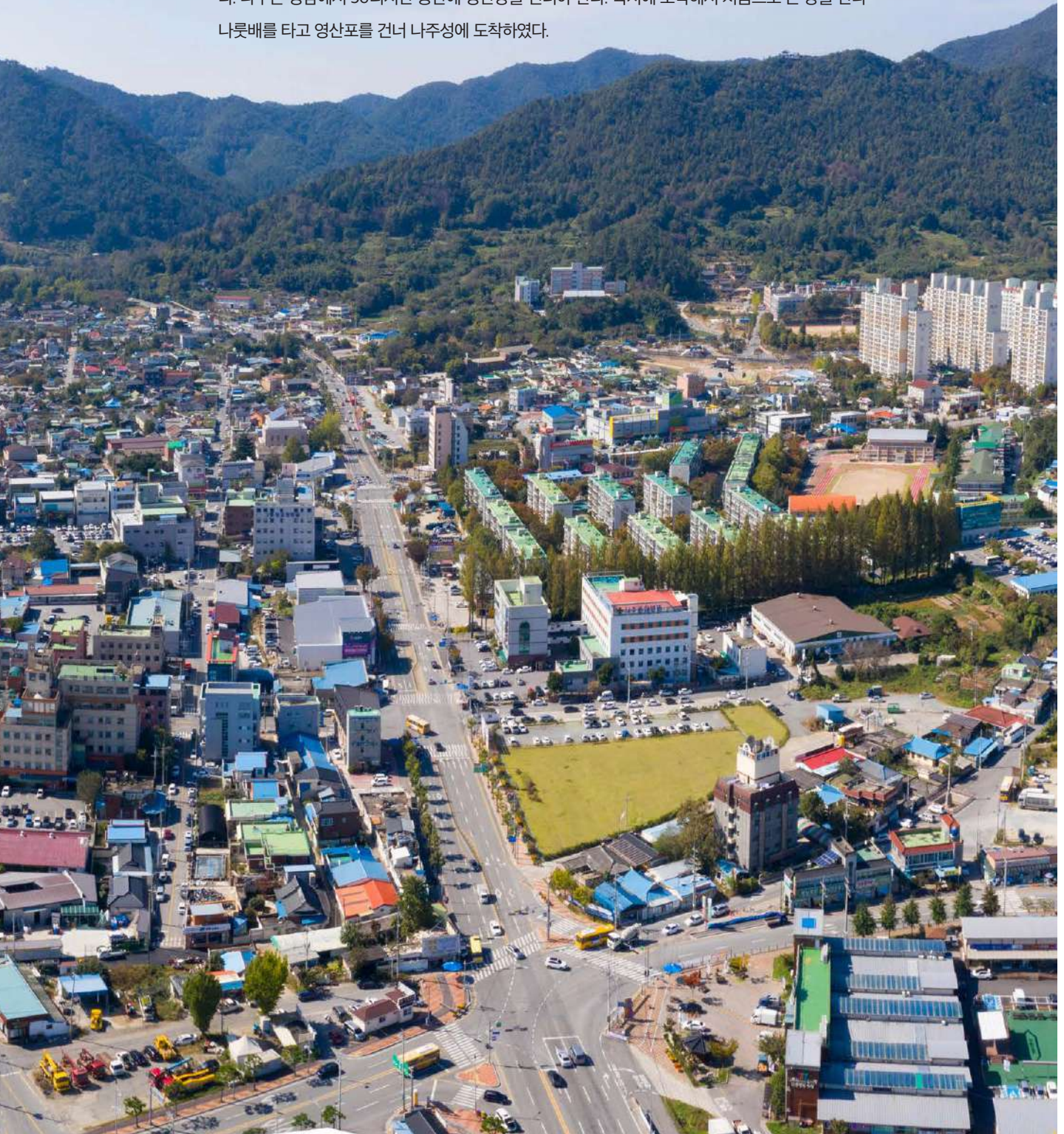
나주는 넓고 비옥한 평야와 온화한 기후 등 좋은 영농조건으로 해서 농업생산이 많으며, 이른바 삼백지방(三白地方)이라 하여, 예로부터 쌀·누에고치·면화의 산지로 유명했다. 총가구의 약 56%가 농가로서, 쌀·보리·고구마 외에 채소류·과일류의 원예농업이 활발하고, 그 밖에 인초(고사리)·양송이 등의 산출이 많다. 영산강 범람원은 과수원으로 이용되어 배를 비롯한 복숭아·포도·사과·감 등의 과일 생산이 대단히 많다. 특히 나주는 일찍부터 품질이 우수한 나주배의 산지로 유명하여, 연 생산량 7,995t을 올림으로써 전국 제1의 배 산지가 되었다. 또 왕곡면·산포면·남평면에서는 시설원에 농업에 의한 오이·고추·무·배추 등의 산출이 많고, 그 밖에 마늘·양파·생강 등도 많이 난다. 한편, 금천면에는 약 3만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는 오리사육장이 있고 한우·젖소·돼지 등을 사육한다.

나주시의 면적은 608.42km²이며, 인구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57,274세대 113,83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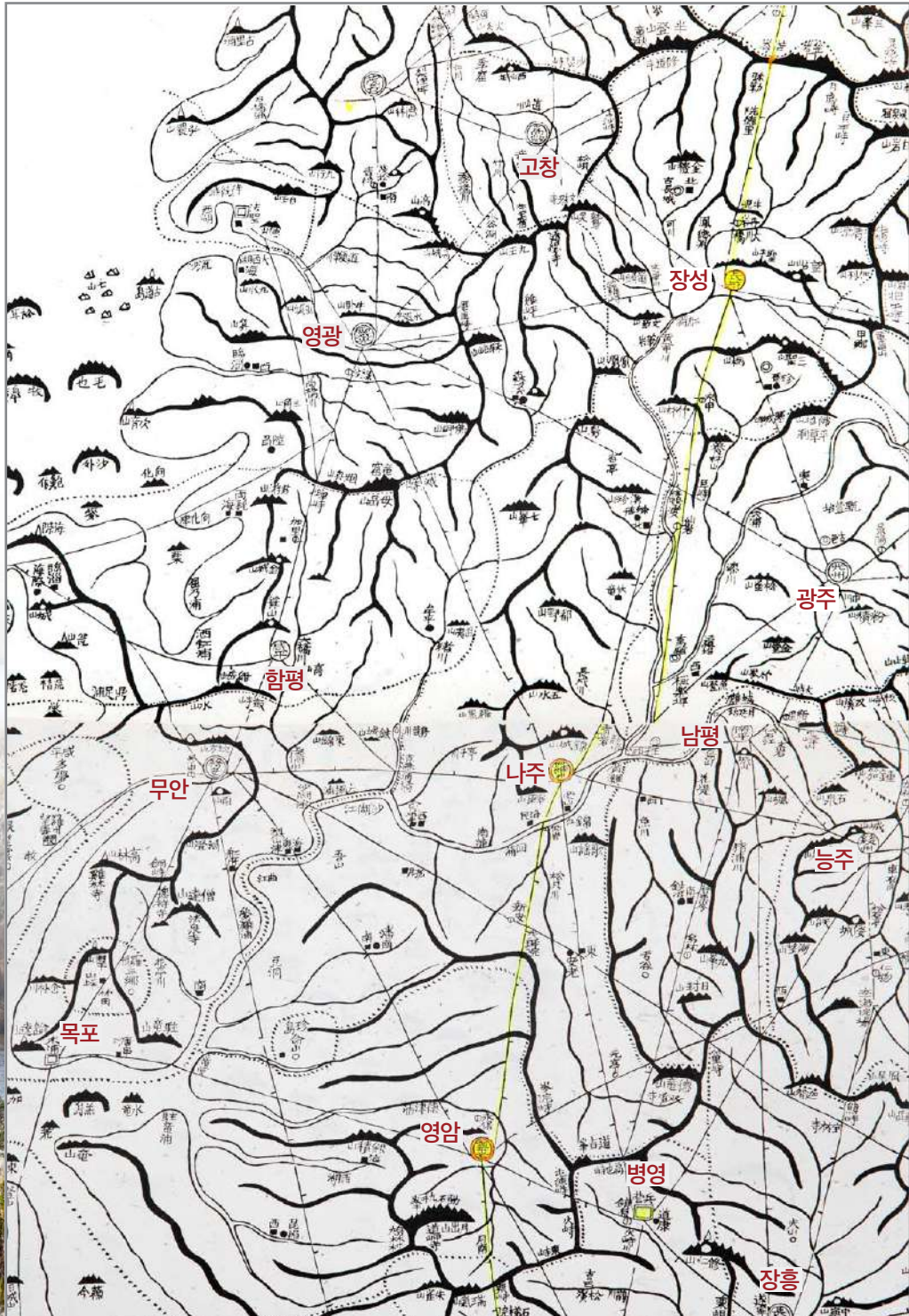
나주목(羅州牧)

한양으로 향하는 김만덕 일행은 해남 관두포에 상륙하고 해남을 거쳐 월출산을 돌아 영암에 도착하였다. 나주는 영암에서 50리지만 중간에 영산강을 건너야 한다. 육지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큰 강을 만나 나룻배를 타고 영산포를 건너 나주성에 도착하였다.



호남의 곡창 - 나주평야

나주는 목사가 관장하는 큰 고을로 강유역에 펼쳐진 기름진 논과 밭에는 오곡백화가 풍성한 고장이다. 나주평야지대는 무안, 영암, 함평, 담양, 장성, 광산, 영광에 이르는 1,610km로 규모가 큰 곳이다. 이곳에서 수확한 곡식은 영산강을 따라 서해로 나가 한양의 마포, 제주도에 이르는 해로를 따라 조운선이 운행되었다.





남고문(南顧門)



북망문(北望門)



금성관(錦城館)



무학당(武學堂)
나주성당

나주읍성(羅州邑城)의 축조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성종2년(983년) 목으로 승격한 이래 전주와 함께 전라도의 주요 지방도시였기에 삼국시대 또는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주읍성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1993년부터 복원을 시작해 2018년 낙성식을 하였다.

나주읍성은 사적 제337호로,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교동 일대에 있는 성이다. 남문은 남고문(南顧門), 동문은 동점문(東漸門), 서문은 영금문(映錦門), 북문은 북망문(北望門)이다.

금성관(錦城館)은 과거 나주목 객사(客舍) 건축물로, 조선 성종 18~20년(1487. 4. 12.~1489. 7. 20.)에 목사(牧使) 이유인이 건립했다. 이후 1775년과 1885년 중수됐고, 일제강점기에는 군 청사로 사용되다 1976년 보수 작업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와 결패(闕牌)를 모시고 매달 초하루,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리는 망궐례를 행했으며, 지방에 온 외국 사신이나 중앙 관리들을 접대(숙박)하는 장소로 사용됐다.



나주평야-영산강, 제주도민의 생명줄

이곳 나주평야는 제주도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빗물이 지하로 바로 스며드는 화산토가 대부분인 제주도에서는 논을 조성하기 어렵고 발농사를 하지만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곳 나주평야지대의 작황에 따라 제주도민의 생명이 달려있기도 했다.

정조의 화성원행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을묘년(1795년) 흉년이 든 제주도에 정리소 전작곡 25,000포의 곡물을 운반해서 배분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 곡식은 나주목의 보리 2,000섬, 무안현 조 300섬, 보성군 조 800섬, 흥덕현 조 250섬, 광양현 조 500섬, 낙안군 조 1,200섬, 좌수영 조 300섬, 피모(겉보리) 200섬, 영광군 피모 1,000섬, 함평현 피모 200섬 등이다.

이 지역은 바다와 강까지 해로로 연결되어 있고 산지에서 제주도까지 단 시간에 많은 곡물을 수송할 수 있다.

교통이 편리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인 나주는 예로부터 중요한 지역이었다. 고려 983년에 나주목을 두고 군을 주둔시켰으며 주변 5개 속군과 11개의 속현을 거느린 남부 거점 도시가 되었다.

밥, 그 밥 한 그릇의 사랑이여 용서여

여보야
밥 안 먹었지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김이 난다 식기 전에 얼른 와서
밥 같이 나눠먹자
마주 보면서 밥 같이 나눠 먹으면
눈빛만 보고도
지난 오십 년 동안 침전된 미운 앙금은
봄눈 녹듯이 녹아 내릴 것 같애
우리 서로 용서가 될 것 같애
여보야
밥 안 먹었지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밥, 그 한 그릇의 사랑이여 용서여
(이선관·시인)







석인상 군



철성바위 석탑



제주 김만덕묘의 동자석



운주사 인근 진주 강씨 묘 동자석

제주에서 한양으로 가는 간선도로는 '제주 제5로'이고 제주도 화북포나 조천포에서 해주해로를 거쳐 해남·영암·나주를 거쳐 북진하는 길이다. 해주해로를 거쳐 이진으로 상륙한다면 강진 - 병영 - 남평을 거쳐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 '제주 제5로'의 동쪽에서 나란히 나있다. 운주사 이길 병영과 남평 사이에 있다.

제주도는 고려 충렬왕(1294년) 사후 80년 간 귀속되어 일본과 남송정벌의 전초기지가 되어 말을 사육하는 병참을 담당하였으며 중산간 지역에 말목장이 형성되고 인구 유입이 늘어났다. 원의 대륙문화와 제주도의 해양문화가 융화되었다. 이 시기를 거친 제주문화는 제주어, 돌조형물, 의식주, 공동체 의식 등에 배어들어 있다.

이 지역은 대륙에서 서해를 통한 뱃길과 대항안령을 넘어 거란군과 몽



여지도에 수록된 전라도 지도(1800대 초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골군이 침략했던 육로와 만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운주사와 제주도의 석인상은 닮은 부분이 많고 몽골 초원지대의 ‘훈출로’와도 비슷하다. ‘돌하르방이 어디서 왔나?’라는 기원은 아직 정확한 정설은 없다. 하지만 나주 운흥사에서 돌장승과 남원 실상사 장승은 돌하르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년 동안 한 번도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김만덕은 나주평

야에 접어들었다. 제주도와는 같은 듯 다른 산천, 버가 날알을 품고 있는 논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런 논이 조금이라도 제주에 있다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곳에서 생산된 양곡은 바람 때만 잘 맞추면 3-5일이면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김만덕은 제주의 여성경제인답게 산지의 시세와 양곡 품질을살피고 믿을 만한 상인과도 만나 보았을 것이다.

제주문화 답사 4

제주의 오름

올려다보면 한라산이, 내려다보면 푸른 바다가 있는 제주. 그 사이에 오름은 안식처로써 넉넉한 품을 내어준다. 이곳에 기대어 살아온 제주인들은 모나지 않고 원만한 오름을 닮았다. 제주도에는 360여 개의 오름이 있다.





제주도민의 삶이 깃든 오름

오름에는 사랑하는 이와
의 가슴시린 추억이 서려있기도 하고 제주 앞바다
의 수평선 너머 하늘을 보며 밤을 지새운 망곡의 자리도 전해진다.

오름에 올라서면 한라산과 오름의 봉우리, 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마을들의 모습, 오름사이를 퍼즐로 엮듯 펼쳐진
밭담이 친근하게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의 서쪽에서 바라본 한라산은 멀리 저녁노을 품고 있고 앞쪽으로
오름들이 솟아 있다.

물영아리 오름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물영아리오름은 생태적 우수성과 그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람사르협약은 세계적 규모의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물영아리오름의 산정 화구호는 둘레 300m, 깊이 40m이며 원형의 화구는 전형적인 온대산지 습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생물, 지형, 지질, 경관 등의 가치가 우수하여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년에 전국최초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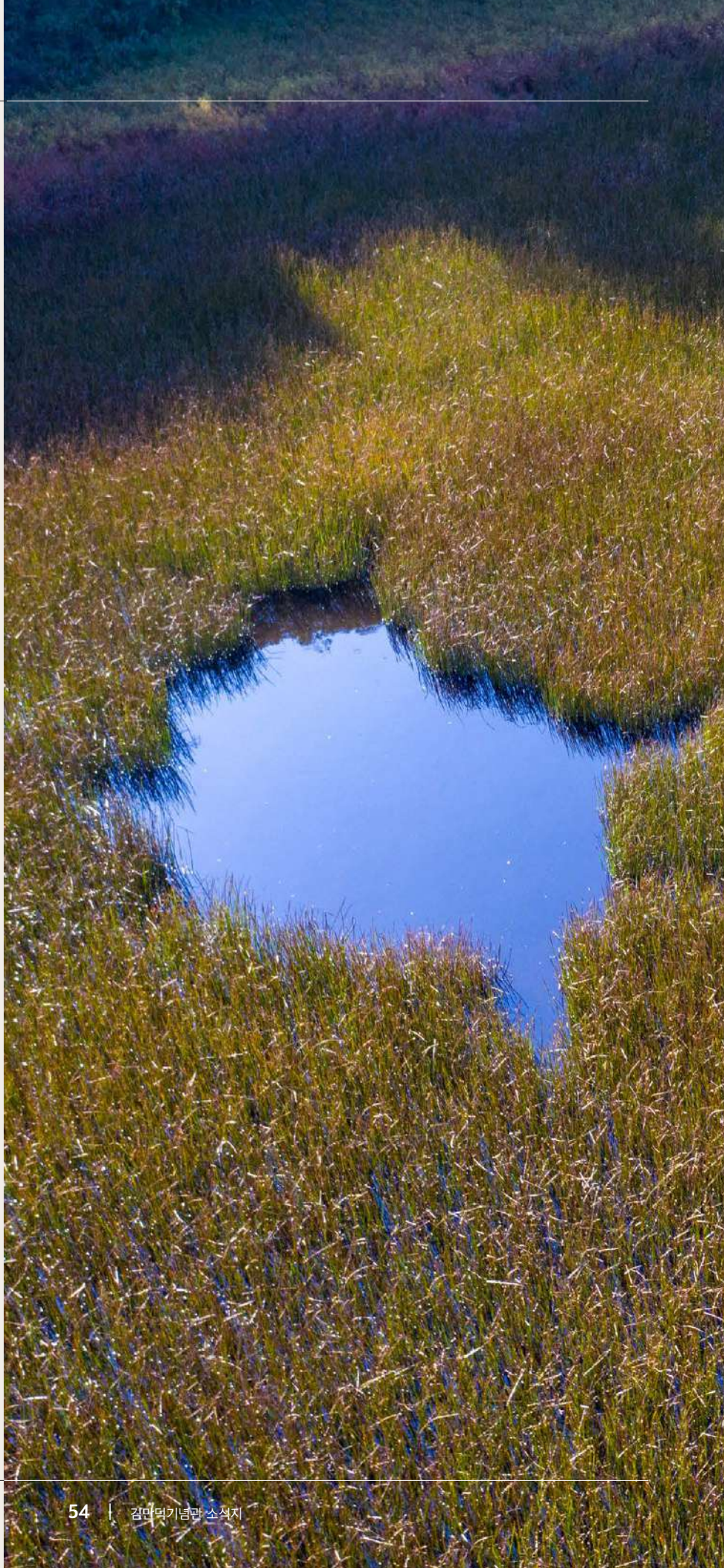
물영아리 오름의 화구 습지

물영아리오름 습지에는 환경부지정 멸종 위기종인 물장군 맹꽁이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여 장마철에는 화구호를 형성하다가 건기에는 습지로 변한다. 분화구내 습지의 육지화 과정, 생태계 물질 순환 등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다.

습지(Wetland)는 물이 습지내부의 환경과 동식물을 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으로써 지구에서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다양한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오염원의 자정작용과 홍수, 가뭄 등을 조절하는 자연 스펀지 역할을 한다.

물영아리오름의 가을

화구호를 가득 채운 고마리가 갈색으로 물들었다. 제주도의 청명한 가을하늘 머금은 물 웅덩이에 새가 날아앉아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오름에 기댄 무덤

한라산이 우러러 보게 되는 영산이라면, 오름은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육신을 받아주는 그릇이다.



오름에서 내어 준 영양분이 가득한 밭

기생화상인 오름에서 뿜어져 나온 돌은 갈여내 밭담이 되고 화산재에 포함된 무기질은 식물을 자라게 한다.



다랑쉬마을 4.3유적지

고향과 가족은 삶의 위로이자 안식처이다. 남의 고향을 파괴한 큰 비극을 아기한 역사는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잣성

잣성은 조선시대 중산간 목초지에 쌓아 만든 목장 경계용 돌담이다. 상잣성과 중잣성, 하잣성이 있다.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城山 日出峰)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산이다. 커다란 사발 모양의 분화구 내부의 면적 129,774㎡, 높이는 182m로 영주십경 중 하나이다. 일출봉 분화구와 주변 1km 해역은 천연기념물 제420호이다. 또한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해저에서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 구성된 상태에서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졌다. 한라산의 360여 개 오름 중 유일하게 해저에서 솟아오른 봉우리이다. 성산 일출봉은 원래는 독립된 화산체로서 사주가 형성되어 본섬과 연결된 육계도이다.

몽골의 오른타커 (아래 사진)

몽골 중북부 볼칸 아이막에 위치한 '오른타커'이다. 언뜻 들으면 오름과 같은 발음인데 '잘 생긴'이라는 뜻이고 타커는 밀판이 둥근 술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몽골에서 산을 울스(Uuls)라고 하는데 이 곳은 '오른타커'라고만 하고 산을 붙이지 않는다. 볼칸은 몽골에서도 말을 많이 키우는 비옥한 초지가 분포된 지역이다. 오른타커 정상에는 화구호가 있고 주변은 습지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의 오름과 풍광도 이름까지 무척 닮아 있다.





제25회(2004년)
감만덕상 수상자

고추월 회장

(주)월자포장 설립자. 제주대 경영학 박사

“나는 항상 외로웠다. 그래도
내 운명을 후회하지 않는다.”





지난 9월 25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의 임민희 회장, 강명순 부회장, 정은아 이사와 함께 고추월 (주)월파포장 회장댁을 방문했다. 고추월 회장은 밝은 모습으로 제주의 여성경제인 후배를 반갑게 맞이했다.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해야 해서 학교를 잘 나가지 못했어요. 중학교 담임 김국배 선생님이 학교에서 졸업장을 가져가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 졸업장을 받고 선생님께 은공을 갚아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돈을 벌었을 때는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교 제주여자중학교로 장학금 1억 원을 가져다 드렸어요.”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소녀 고추월은 포기했던 중학교 졸업장을 주신 선생님께 대한 감사와 학업에 대한 열망이 가슴에 남아 모교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에도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500만 원씩 10명에게 해마다 지원하고, 작은 아들이 회사를 맡아 잘 운영하는데 이번에는 12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지난번보다 거동하실 정도로 좋아져서 다행이라는 말에 “모

슬포에 사는 어느 가정이 지병으로 딱한 처지에 있다는 사연을 신문에서 보고 회사도 가지 않고 딸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수술비를 지원했는데 매년 부인과 딸이 과일을 사가지고 찾아왔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마음을 잘 쓰고 좋은 일했다고 다시 살려주셨나 봐요. 저는 회사만 경영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성경제인 후배님들은 어떤 일에도 항상 열심히 하고 많이 베풀기를 바랍니다.”라며 고문으로 있는 협회의 여러 사정에 대해 덕담을 나눴다.





노점상에서 친환경 패키지 업계 CEO로

1989년 설립한 월자포장은 제주도 굴지의 골판지 상자 제조 업체이다. 부도 위기의 월자상회를 인수해서 청과유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나무상자에 담은 제주의 특산물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골판지 제조에서 인쇄, 박스제작을 하는 윈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골판지 제조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폐지를 이용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에 기여하는 그린자원, 월자제지, 월자포장으로 규모를 늘려갔다.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흡입시설과 폐비닐, 폐합성수지를 소각해 발생하는 열을 공장을 가동하는 에너지로 사용한다. 제주도 전역에서 수거한 폐지로 만든 박스에 담긴 감귤 등 제주특산물은 가격 경쟁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일제주인 가정의 외동딸

고추월 회장은 1938년 일본 구마모토에서 태어나 오사카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족과 함께 대한해협을 건너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말도 제주문화 모두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였다. 당연히 학교 친구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4남 1녀 중 외동딸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만한데 그녀에게는 예쁜 옷 대





신에 몸뚱이 바지만 주어졌을 뿐이었다. 이미 10대부터 광주리에 과일 노점으로 잔뼈가 굵었을 정도였다.

기억 속 어린 시절은 꿈 많은 학창시절보다는 몸서리치도록 외롭고 고된 시절이었지만 자신의 짐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살아왔다. 팔순의 나이에 가장 생각나는 분, 어린 고추월의 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졸업장을 건네 준 중학교 담임 김국배 선생님을 떠올렸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말하며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매일 눈물

로 보냈다고 한다. 얼마나 잘 울었는지 두려움과 창피함 그리고 넘기 버거운 삶의 무게가 크게만 느껴졌다.

일본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가족에게 편히 머물 곳은 없었다. 수십 차례 넘게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여행 다니듯 이사했기 때문에 과일을 팔던 노점도 머물지 못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어린 시절 장사하며 인상 깊었던 일을 묻자 “한 번은 물건 살 돈이 없어서 사다가 되팔기를 하는데, 산지 노인이 돈도 없고, 아무 것도 팔길 것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로 외상을 달라고 하느냐며 정색을 하며 호통치더라고, 참... 그 때 그



설움은 당해 본 사람만 알지...” 그렇게 모질게 살아오던 23세의 따뜻한 봄날, 남편을 만나 슬하에 4남을 두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어린 시절은 남자 형제들과 함께, 일터에서는 장사꾼들과 함께, 그리고 현재의 가족들까지... 그녀는 정말 체할 정도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오기까지 소녀 고추월 뒤에는 그녀보다 강인한 어머니가 있었다. 16살 되면서 그녀는 동문로터리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 하루 번 돈을 그대로 그날 사용할 빨감과 쌀로 맞바꿔야했던 시절이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부모와 형제는 내 힘으로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다고 한다. 그렇게 악착같이 운영한 노점상으로 1960년에 청과물 상점인 월자상회를 열었다. 노점상을 할 때도 그러했지만 이때부터 그녀의 사업 근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상점과 달리 직접 두 발로 산지를 찾아가 두 눈으로 좋은 상품을 골라 싸게 팔았다. 이런 열성으로 월자상회는 날마다 번성하여 1984년 부도난 포장회사를 인수하였다. 청과물 유통사업에서 포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란 생각에서였다. 이렇게 그녀는 1989년 월자포장이란 이

름으로 본격적인 CEO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었다.

또순이 사장의 꿈

바지런하게 20여 년간 청과를 팔아오던 날이었다. 과일이 들어있던 나무상자를 보며 문득 나무가 아닌 종이상자에 담겨왔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또 다른 사업의 문을 열었다. 사업 초창기 때 누군가 종이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한 말에 고철에 불과했던 기계를 사다가 수리하는데 만 7천여만 원을 쏟아 부었고, 막상 기계가 작동하자 상자를 만드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했던가! 그 고물 기계로 그녀는 결국 육지의 어느 상자보다 야무진 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제주 최고, 아니 전국 최고의 상자가 그녀의 손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아직 꿈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네 어머니들 사우나에 가 앉아 우리자식 서울 가서 취직했다며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똑똑할수록 제주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



제주대학교에 세워진 고추월 박사 흉상



김만덕상 수상(제25회, 2004년)



베트남 '번푸만덕중학교에 시설자금 및 장학금 전달

다. 그러기 위해 제주 행정에서 젊은이들에게 일터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저 역시 미래가 있는, 특히 그 미래를 위해 나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똑똑한 우리 제주의 아들, 딸들이 제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경영인으로서 겪은 어려움

“사업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여자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래처에서 말조차 하지 않으려 할 때였어요. 하지만 어렵게 뚫은 거래처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합니다.”라며 사업철학을 내비쳤다. 회사를 시작한 51세 이후로 쉬어본 일이 없다. 그렇게 악작같이 살아서 뭇하냐고 묻는 이들에게 “취미가 사업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며 답한다고 한다.

처음 월자포장을 인수할 당시 남편(2005년 작고)조차도 만류할 정도로 여자가 사업한다고 질시도 받고 얼마 못 버틸 거라는 예상을 떨치고 정직과 사업을 취미로 여기는 CEO 고추월

의 마음가짐으로 극복해냈다.

고추월 회장은 베트남 나트랑의 ‘칸호아제주초등학교’ 교정에서 번번한 교복도 갖추지 못하고 맨발로 뛰노는 아이들 보며 일본에서 돌아와 말이 서툴고 놀이도 익숙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었던 그때를 생각난 듯 말없이 찬찬히 바라보았다.

번푸만덕중학교에서는 밝게 자라는 학생을 격려해 주었다. 급히 꼭 팀장을 불러 장학금을 더 챙겨서 교장에게 전달하며 어려운 아이에게 써달라고 전하며 환하게 웃었다.

제주여성경제인으로서 김만덕과 고추월은 어린 시절 양친을 여의고 가족을 돌보며 객주로 재물을 모았던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근검절약으로 억척스럽게 모은 재산을 내어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선행이 200년의 시대를 넘어 판박이처럼 오버랩 된다.

“나는 항상 외로웠다. 그러나 내 운명을 후회하지 않는다.”

HEOUNDE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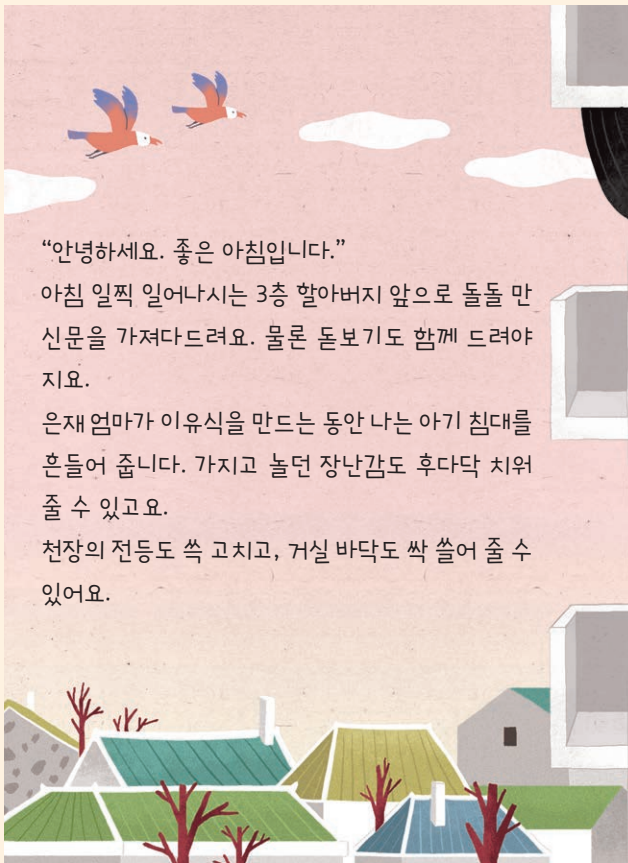
허운데기

글 김신숙 그림 문수민





나는 마음이 빨리 자라는 아이입니다.
 나의 마음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뿌리아파트를 살
 살이 훑어보고 있어요. 머리카락으로 아파트를 꽉 골
 어안으면, 이웃들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심장 소리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드넓은 우주의 들판에서 지구가 한 바퀴 빙그르르 도
 는 소리를 좋아해요. 먼 우주에서 지구로 찾아오는
 별빛은 참 부드럽지요.
 나는 까만 밤을 닮은 머리카락이 별뚱별 떨어지는 속
 도로 자라는 아이입니다. 나의 이름은 '허운', 머리카
 락을 '허운데기'라고 부르는 곳에서 살아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3층 할아버지 앞으로 돌돌 만
 신문을 가져다드려요. 물론 돋보기도 함께 드려야
 지요.
 은재엄마가 이유식을 만드는 동안 나는 아기 침대를
 흔들어 줍니다.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후다닥 치워
 줄 수 있고요.
 천장의 전등도 쓱 고치고, 거실 바닥도 쓱 쓸어 줄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뿌리아파트 사람들이 힘을 모아 머리카락을 땀아 주었어요. 백 가닥으로 땀은 머리카락을 새들과 곤충들이 하나씩 입에 물 었지요.

그래도 손이 부족해 뒷산에서 사슴벌레, 달팽이 그리고 고양이들까지 내 머리카락을 등에 이고 다 함께 한라봉 초등학교를 향해 걸어갑니다. 너무 신나서 날아갈 것 같아요.

“야호, 오늘은 초등학생이 되는 날입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가는 첫날은 엄청 시끄러웠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자 자동차들이 뱅뱅거렸어요.

뿌리아파트 사람들은 모여서 고민을 했어요.

방법은 딱 하나, 열기구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출발한 열기구는 바람을 따라 두둥실 떠올랐어요.

긴 머리카락은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뒷산을 지나갈 때 아슬아슬했지만 새들이 먼저 알고 더 높이 열 기구를 끌어 올렸어요.

나는 하늘을 날아 학교에 갑니다.

“와, 시원해. 하늘 높은 곳을 다니는 바람은 먼 산의 빙하 냄새 까지 품고 있구나.”









나는 단발머리를 곱게 빗고 이웃에게 아침 인사를 합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러 갑니다.
꽃을 심은 사람은 꽃을, 대파를 심은 사람은 대파를 나눠주지요.
호박은 아파트 벽을 타고 베란다마다 노랗게 빛나고 있어요.
뿌리이용원 아저씨는 저와 함께 우리 마을 나무를 관리해요.
꽃들이 계절마다 다르게 피고, 열매도 다른 무늬로 영글어 가지요.
“아저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나뭇잎들이 물고기처럼 참 싱싱하네요.”



오늘은 이웃들과 뒷산으로 가 하룻밤을 보내는 날입니다.
가끔 긴 머리카락이 그리운 날도 있지만, 숲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건친구들과 함께 머리카락 방방을 타는 기분이지요.
까만 밤마다 우주의 별들이 내려와 우리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별뚱별속도로 자라던 머리카락은 이젠 숲이 자라는 속도로만 자랍니다.
이제 긴 머리카락은 없지만 먼 별까지 닿을 만큼 생각이 많은, 마음이 빨리 자라는 아이입니다.
뿌리아파트와 숲으로 놀러 오세요.
머리카락이 길지 않더라도 바늘처럼 생각을 집중하면우주의 모든 곳까지 닿을 수 있어요.

함께 읽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사용 설명서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나눔에 대해 새롭게 표현할 즐거운 기회를 선물하는 그림책입니다.
이야기가 낯설고 엉뚱할수록 어린이들은 더 감각적으로 상상력이 쑥쑥 자라지요.

제주에는 설문대 할망, 영등 할망 등 다양한 여성 신화가 많지요.
이 그림책은 어린이 눈에 맞춰 나이는 비슷하지만,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허운’이 주인공입니다.

‘허운’은 제주어로 ‘허운데기’ 즉 머리카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머리카락을 누군가 묶어 주거나 떼어주는 것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눔의 현장입니다.

스스로 누군가의 머리를 묶어 주거나 빗겨주는 경험도 나눔의 경험이지요.
가녀린 머리카락으로 우리는 어떤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머리카락이 무럭무럭 자라듯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렸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어른이라면 이 그림책에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숨은그림찾기처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고집스러운 ‘허운’을 위해
이웃들은 머리를 함께 감겨 주기도 하고, 떼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긴 머리카락 때문에 등교가 어려울 때도 어린이 ‘허운’의 개성을 함부로 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숲에서 자고 싶고, 시냇가에서 해염을 치고, 동물들과 우정을 나누는 삶을 꿈꾸지요.
이웃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리고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 신나는 등교를
하는 주인공을 통해 어린이들이 나눔에 대해 즐거운 기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어른이 어린이에게
어린이가 어른에게
서로 질문하기



1. 머리카락처럼 사람들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2. 머리카락으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3. 머리카락을 입에 물고 함께 등교하는 새들과 곤충들처럼 허운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4. 세상에 꼭 필요한 열기구를 함께 그려 보세요.
5.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머리카락으로 만들 수 있는 놀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6. 우리 집 마당이나 옥상에서 함께 지내고 싶은 동물들을 물어보세요.
7. 조약돌 아저씨가 가위로 자른 특별한 무늬를 가진 나무를 그려볼까요.
8. 집을 떠나 혼자 살아야 한다면 어떤 곳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요.
9. 불이 나 살림이 다 타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10. 처음 머리카락을 자르고 난 뒤 허운은 무척 슬펐어요.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11. 바늘처럼 집중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은가요.
12. 숲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까요.

은광연세

그림책을 내며

“은혜의 별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안녕하세요.

이 그림책은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김만덕 기념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만덕은 조선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성을 차별하는 시대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

다. 심지어 열두 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도전하고 개척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했고 많은 이웃을 도와주는 나눔을 실천했습니

다. 김만덕은 장사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당시에는 자연에서 얻은 물건들을 사고

다시 팔았기 때문에 자연을 관찰하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지혜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귀한 교통수단이었던 배로 제주의 물건들과 육지의 물건들을 다양하게 교류하며 부자가 되었지요. 그

래서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다른 지역에서 쌀을 싣고 와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

어요. 만약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김만덕 창고에 가 보고 싶어요.

그 창고에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많은 물건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많은 분이었지만 늘 검소하게 살면서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

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활철학을 실천하

며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

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하는 마음과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에 대해

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상상력이 있어야 이웃과 자연과 세상을 위한 즐거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주

어로 ‘머리카락’을 ‘허운데기’라고 하지요.

가늘고 힘없어 보이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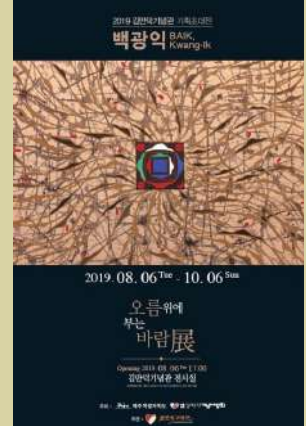
얼마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지 즐거운 상상을 펼쳐보기 바랍니다.

낮에는 환한 태양을 바라보며 열심히 밭일과 바다 일을 하고 밤이면 별들을 바라보며 다양한 상상을 했

을 어린이 김만덕을 상상해 봅니다. 그 눈빛이 여러분의 눈빛과 참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김만덕 기념관에서 만나요.





주요행사

2019 1 - 12

- 김만덕주간
- 기획전·나눔특강
- 장수효도시진
- 만덕학교
- 어린이 청소년 나눔교실



제3회 김만덕주간

2019 제3회 김만덕주간행사가 10월 19일(토)부터 10월 26일(토)까지 8일간 열렸다. 올해는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40회를 맞이해 '김만덕상 수상자의 밤'을 시작으로 '40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나눔큰잔치', '김만덕 유적 탐방', '어린이 사생대회', '방송인 박지윤 초청 나눔특강' 등 다양한 주간행사가 있었다.



만덕제 및 나눔큰잔치 개막식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주관한 '제40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많은 도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일 오전 10시 사라봉 모충사에서는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양원찬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와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만덕제'가 엄숙하게 봉행되었고, 김만덕상 봉사부문 김영순씨(71세), 경제인부문 박경란씨(59세)가 참석자들의

축하 속에 김만덕상을 수상했다.

11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주MBC특집생방송 '김만덕 나눔큰잔치'와 라디오생방송 '즐거운 오후2시'가 방송되어 잔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체험은 물론, 준비한 3,000인분의 국수와 400인분의 짜장면이 동이 나고, 도개발공사가 후원한 삼다수 3,000개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후원한 장바구니 3,000개도 조기 소진되는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었다. 이밖에도 떡, 찌뽕, 통돼지바베큐, 굴 등 다양한 먹거리로 잔치를 찾은 분들께 대접했다. 그리고 잔치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따뜻한 밥



한끼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 죄송한 마음을 담아 500g 짜리 쌀 1,000개를 나눴다.

‘나눔 큰잔치’ 개막행사에서는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이어 제주농협(본부장 변대근), 윤진호 정형외과, 김해김씨좌정승공파종친회(회장 김주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회장 임민희), 김추자(건일동), (사)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오옥성), 김만덕상수상자회(회장 진춘자), 조영숙(주)미사 대표, 박명순(제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기부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을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에게 기탁했다.

개막식에는 만덕상 수상자들과 만덕제 제관,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문종태의원, 이상봉의원, 부공남의원, 고현수의원, 김창식의원, 오영희의원, 한영진의원, 김장영의원, 고희범 제주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장,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홍식 제주적십자사 회장, 김봉오 제주문화원장, 이유근 도자원봉사협의회장, 임민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장, 오옥성 도여성단체협의회장 등 내빈과 많은 제주도민들이 참석하여 만덕큰잔치를 축하하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문로터리광장과 김만덕기념관 일대에서 개최된 '나눔 큰잔치'는 주말을 맞은 많은 도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무료 제공된 국수·짜장면·떡·빵·굴·수육 등 음식을 맛보며 '큰 잔치'를 즐겼다. 기념품 나눔, 사랑의 쌀 나눔 등 나눔행사와 자선바자,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김만덕의 넉넉한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김만덕 주간-유적탐방



“나눔의 삶을 따라” 유적탐방(10월 23일)

김만덕 할망의 “나눔의 삶을 따라” 유적탐방을 하였다. 김만덕기념관을 시작으로, 모충사와 화북진성을 둘러 원당봉 불탑사 5층석탑을 탐방하였다.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김녕 입산봉수와 굴부리 연지, 궤넷귀당을 둘러보고, 조천진성 연북정에서 탐방을 마무리하였다. 명해설을 해주신 질토래비 문영택 이사장의 명해설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제주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사생대회(10월 24일)



신(新)김만덕객주(10월 21일)

가족과 함께 하는 신(新)김만덕객주는 김만덕기념관 및 객주에서 퀴즈도 풀고 전통놀이를 하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방과후 나눔교실 - 김만덕 나눔문화탐험대(10월 22일)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가 친구들과 함께 <방과후 나눔교실 - 김만덕 나눔문화탐험대>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전시실을 탐험하며 김만덕 할머니의 도전, 나눔정신을 찾아보고, 예쁘게 내가 생각하는 김만덕할머니를 그려보았다.



김만덕 주간-나눔데이



“나눔데이”(10월 25일)

제3회 김만덕주간 10월 25일, ‘나눔데이’가 개최되었다. 김만덕주간에 기부해주신 성금으로 마련한 6톤의 쌀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나눴다.

제주시 14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량을 가져와 4톤의 나눔쌀을 배분했고, 서귀포시에는 2톤의 쌀을 배분했다. 이번 김만덕주간을 맞아해 기부에 동참해주신 제주농협(본부장 변대근), 윤진호 정형외과, 김해 김씨좌정승공파총친회(회장 김주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회장 임민희), 김추자(건입동), (사)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오옥성), 김만덕상수상자회(회장 진춘자), 조영숙((주)미사 대표), 박명순(제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대표), 한월자(29회 김만덕상 수상자)님에게 감사드린다.

방송인 박지윤 나눔특강

시대를 관통하는 여성상, 김만덕과 나눔의 가치



방송인 박지윤 나눔특강-시대를 관통하는 여성상, 김만덕과 나눔의 가치(10월 26일)

제3회 김만덕주간 마지막 행사로 '방송인 박지윤 나눔특강-시대를 관통하는 여성상, 김만덕과 나눔의 가치'를 개최했다. 특강에서는 KBS 아나운서로 방송활동을 시작해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방송 활동하고 있는 박지윤씨가 나눔과 도전,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삶의 자세 등에 대해 청중과 공감했다. 특히 제주에서 '박지윤 바자' 계획을 묻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장소 협조가 여의치 않아 어렵다는 박지윤씨의 대답을 듣고, 이웃을 위한 나눔행사이니 김만덕기념관을 사용하도록 제안을 하기도 했다. 2019년 제3회 김만덕주간 행사를 마치고 김상훈 관장은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내년 김만덕주간도 더욱 알차고, 풍성한 행사로 주간행사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방송인 박지윤과 함께하는 나눔특강

시대를 관통하는 여성상,
김만덕과
나눔의 가치

2019. 10. 26(토) 15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

신청 선착순 200명 현장접수

문의 김만덕기념관 064-759-6090

주최 **크리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사업회**
주관 **홍익대학교** 후원 **제주 MBC**



김만덕기념관 개관 4주년 기념 기획전시

‘은혜로 쿼다’



2019년 5월 28일 김만덕기념관 개관 4주년 기념식을 겸한 ‘은혜로 쿼다’ 전시 오프닝이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임태봉 도보건의복지여성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2015년 문을 연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의 애민정신을 널리 알리면서 이웃과 나누고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일구는 일에 앞장 서왔습니다. 사단법인 김만덕사업회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 건강한 제주를 일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김만덕의 정

신과 가치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제주를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개관을 축하하였다. 김만덕기념관 개관 4주년 기념 기획전 ‘은혜로 쿼다’는 강명순, 강시권, 고영만, 고용석, 고은, 고재만, 김남숙, 김순관, 김용환, 김천희, 김현숙, 박성진, 백광익, 백주순, 송은실, 송창훈, 안진희, 오옥자, 유창춘, 이미선, 이성종, 이숙희, 이승수, 이창희, 장여진, 한용민 등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백광익 <오름 위에 부는 바람展>



8월 6일 오후 5시, 김만덕기념관 기획전대전<백광익:오름 위에 부는 바람>展 오프닝이 많은 분들의 축하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오프닝에는 백광익 작가의 지난 작품 생활을 반추하듯, 작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여름밤 밤하늘을 바라보듯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김만덕의 넓은 마음을 닮은 제주 오름, 그리고 오름을 넘나드는 바람을 담은 이번 전시는 10월 6일까지 전시되었다.

김재춘 <민화세계展>



10월 7일부터 김만덕기념관 1, 2층 기획전시실에서 “김재춘의 민화세계展”이 열렸다. 제주에서는 처음인 한국 궁중화의 명장 해원 김재춘 작가의 전시로, 궁중회화와 용그림 등 민화병풍 9점, 액자 28점 등 총 37점의 민화작품을 전시하였다. 전 재산을 내놓아 제주민을 품었던 김만덕의 삶과 정신세계에 공감하며 존경해온 작가가 재해석한 김만덕의 영정을 김만덕기념관에 기증하였다. 제주식 문자로도 표현된 은광연세(恩光衍世) 등 제주도 특별전만을 위한 작품과 궁중회화부터 민화까지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만덕할머니의 나눔교실> 작품전시회



10월 19일부터 한 달 간 김만덕기념관에서 실시한 가족나눔교육 프로그램인 '만덕할머니의 나눔교실'에 참가한 가족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물감으로 만덕할머니를 그리고 자수로 장식을 하거나 가족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재활용 재료를 이용해서 가족의 사랑을 비취줄 등을 만들어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했다.

<만덕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나눔 작은 그림전<우리 집에 그림 하나>



12월 20일 김만덕기념관 나눔 작은 그림전<우리 집에 그림 하나>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작품판매와 더불어 수익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되는 나눔전시로, 작품크기에 상관없이 각 30만 원에 판매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강만보, 강명순, 강미경, 고윤식, 고재만, 김강훈, 김미령, 김범균, 김산, 김성란, 김소라, 김인택, 루씨썬, 문은주, 박길주, 백광익, 성옥현, 손유진, 송용한, 신승훈, 신준철, 양근석, 양민희, 양정임, 유서진, 유승현, 유창훈, 이성중, 이영희, 이치우, 이하늘, 장영준, 장예린, 정재훈, 최창훈, 한윤정, 현덕식, 현문숙, 홍지안 등 39명이며, 작품은 총 63점이다. 오프닝날부터 많은 작품을 구매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이루어졌다. 오프닝에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과 제주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현악4중주의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크리스마스 파티분위기를 느끼게 하였다.

학술세미나 ‘18세기 조선사회와 김만덕’



4월 19일, 2019 김만덕기념관 학술세미나가 ‘18세기 조선 사회와 김만덕’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 한국사연구회, 제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8세기의 상품유통구조와 진흥제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활동과 ‘김만덕이 활동하던 시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조명’하였다. 김만덕의 정신을 선양하는 기념사업과 기념관의 활동에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만덕 활동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김만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남겨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김만덕기념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된 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김만덕에 대한 자료 발굴과 학술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가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하였다.

나눔특강 ‘헐크 이만수의 도전과 나눔’



12월 20일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자 헐크파운데이션 이사장인 이만수 감독을 초청해 ‘헐크 이만수의 도전과 나눔’ 특강을 하였다. 야구인 이만수의 선수시절, 코치, 감독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불굴의 의지와 끝없는 개척정신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제주의 야구 꿈나무들이 특강에 참석하여 당찬 질문과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감독과의 대화를 나눴다.



2019 '제4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일반부 대상 김도은



일반부 최우수상 현승혜



김만덕기념관에서는 12월 14일 나눔디자인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일반부와 학생부 총 18명에게 직접 시상을 했다. '2019 제4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은 전국적으로 김만덕을 알리고, 김만덕 나눔정신의 계승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김만덕과 관련한 문화상품디자인과 캐릭터디자인 등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일반부 △대상: 김도은 △최우수: 현승혜 △우수: 이예원, 박혜선 △장려: 김용진, 노미라, 김초희, 강혜수, 고현나 ▲학생부 △대상: 이하나 △최우수: 신지현 △우수: 한수민, 임도연 △장려: 이금희, 문선영, 이샘, 양문선, 김지연 등이다.

일반부 입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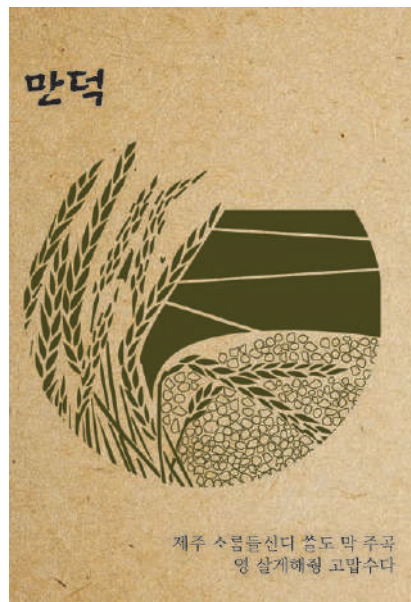
우수상 이예원



우수상 박혜선



장려상 고현나



장려상 김혜수



장려상 노미라



장려상 김초희



장려상 김용진

학생부 입상작



학생부 대상 이하나



학생부 최우수상 신지현



학생부 우수상 한수민



학생부 우수상 임도연



학생부 장려상 이금희



학생부 장려상 문선영



학생부 장려상 양문선



학생부 장려상 이샘



학생부 장려상 김지연

청소년 만덕나눔봉사단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고 몸소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와 뜻을 되새겨 보고자 <청소년만덕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환경정비활동을 하였다.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송죽원에서는 시설 내부 청소뿐만 아니라 '김만덕 사랑의 쌀'도 전달하고 왔다.



만덕서포터즈 나누미(美)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청소년 나눔, 봉사 프로그램 <만덕 서포터즈 나누미(美)>를 운영하였다.

나눔과 봉사, 김만덕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중·고등학생) 10명 참여, 양로원 및 경로당 방문하여나눔 옷놀이 게임, 오메기떡 만들기, 동화구연 등 놀이로 어르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튜디오'감자'와 함께한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

김상훈(김만덕기념관 관장)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는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이어 받아 실천하는 선행사업 일환으로 시행하였다. 지역사회경제 발전을 이끈 제주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을 통해 작은 행복을 전달함으로써 자존감 증진 및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농협은행, 제주은행, 스튜디오감자의 후원으로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및 김만덕기념관이 주관하였다.

김만덕기념관에서 한국광고사진가협회 초대회장을 지낸 장영준 사진작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제주도내 경로당을 찾다니며,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을 실시했다. 대한노인회 제주광역시센터에서 추천받은 경로당 76개소, 1,010명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어르신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8월 20일에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제주MBC 'TV매거진 해피플러스 방송'에 방영되었다. 이날 농협은행 제주본부와 농협서문지점에서 직원들도 함께 하며 촬영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긴장도 풀어드리는 등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경로당 76개소, 1,010명분께 나눔을 실천하고
어르신들께 행복한 추억과 장수효도사진을 선물하였다.



“자 여기 보시고요~ 좋아요. 손주 이름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스튜디오감자의 장영준 작가의 선행에 프랑스 마크 작가와 라팡시아하 우스웨딩홀 최성윤 대표와 이나래 뷰티 총괄 매니저 등도 함께 촬영을 지원하기도 했다. “얼굴 작게 찍어주세요” “기분 좋게 사진 찍어줘 좋고, 와줘 좋고, 옛날엔 누가 이런일을 해줘. 세상이 좋아져 좋다” 어르신들이 감사를 표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요청으로 섬속의 섬, 우도체육관에서 진행된 ‘2019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행사에 참석하여, 장수효도사진을 찍어드리고 나눔쌀 200kg을 우도면사무소에 전달하였다.

장수효도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별로 탐탐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재능기부를 한 사진작가 알렉스킴과 올해 장영준 작가의 혼신을 다한 사진작품에 감동을 받아 2000여 분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 선물해 드렸다.

부모님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스튜디오감자의 장영준 사진작가와 알렉스 김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준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농협은행, 제주은행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나눔정신 접목 취미·교양 강좌

‘만덕학교’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청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나눔정신을 접목한 다양한 주제의 취미·교양 강좌 ‘만덕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지난 해 큰 인기가 있었던 캘리그래피에 더해 케이터링 푸드, 사진, 프랑스사주, 리사이클 공예 등 강좌를 2개월 8회씩 3월-5월 전반기와 6월-8월 후반기 2기를 실시하였다.



캘리그래피

김초은 대표(캘리그래피 오월)의 지도로 펜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기본 선긋기와 간단한 단어, 문구를 써 보면서 펜을 잡는 감각을 키우는 방법에서 G펜촉을 활용하여 문장 구성과 감성 표현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멋진 캘리그래피 세계로 이끌어 주는 강좌이다.



케이터링 푸드

양혜미 대표(오끼416)의 지도로 특별한 날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파티음식과 음식 스타일링에 대해 배워보는 강좌이다. 바나나를 활용한 머핀이나 썬드라이드 토마토 페스토와 깻잎 페스토 두가지를 활용한 샌드위치, 한라봉이 들어간 소이 드레싱을 비롯하여 드레싱 3종과 샐러드 등 제주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멋진 음식만드는 법을 익혀나갔다.



사진

일반 카메라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스마트폰, 사진 어플리케이션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이다. 강사는 김병국 사진연구실 대표이다. 이론 강의를 토대로 야외 촬영 할 때에 그동안 배웠던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고, 자유롭게 찍으면서 선생님께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으며 감각을 익혔다. 여러 분야의 직업을 가진 수강생들은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다.





프랑스 자수

‘로사의프랑스자수’ 대표인 고은실 강사의 강좌로 서양자수로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강좌이다. 프랑스 자수의 체인, 프렌치노트 스티치 수놓기 기법을 중심으로 한땀 한땀 정성을 들여 수를 놓으며 자수를 익혀 나간다.

실과 바늘만으로도 일상 속에 소소한 재미를 더하고 작품을 만들며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프랑스 자수의 매력이다.



리사이클 공예

‘리사이클공예’강좌에서는 친환경적 모티브와 제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반딧불공작소’ 윤성재 대표와 함께 재생지를 활용한 펄프시계만들기와 한지등공예를 배웠다. 밋밋했던 재생지에 알록달록 색한지를 입히니 예쁜 시계가 완성이 되었다.

한지 전통등의 제작과정은 [빠대만들기] → [빠대 공간에 한지 배치하기] → [채색하기] 를 거친다. 수강생들은 버려진 재료로 멋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무한한 리사이클 공예에 빠졌다.



‘만덕학교’ 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경제교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8월 7, 8, 9일 <만덕학교-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경제교실>을 운영하였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8월 7, 8, 9일 <만덕학교-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경제교실>을 운영하였다.

첫 날은 거상 김만덕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에 담긴 조선시대 인물과 역사를 배웠다. 다음 날은 화폐와 금융, 은행과 금리 등 경제를 공부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동문시장의 NH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은행 창구체험, 지폐 세는 법과 띠지 묶는 법, 위조지폐 감별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수료식을 가졌다.



유아 나눔교육프로그램

〈만덕할머니와 나눔항아리〉



유아 나눔교육프로그램 <만덕할머니와 나눔항아리>를 운영했다. 새해가 되어 7살 언니 오빠가 된 의젓하고 발랄한 친구들과 함께 <만덕과 푸른항아리> 동화를 함께 읽고 김만덕 할머니가 어떤 나눔을 했는지 알아보고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다.

〈만덕할머니의 나눔교실〉

김만덕기념관과 먼 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나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예쁜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예쁜말을 나누는 것!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나눔이다.

유아나눔교육 <만덕할머니의 나눔교실>은 유아교육시설 67개소 1,928명을 대상으로 315회를 실시하였다.

“우리도 만덕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새솔어린이집 친구들이 김만덕기념관 관람을 하며 사랑의나눔쌀을 기부했다. 고사리손으로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예쁜손으로 친구를 안아줄 수 있어요!”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이 아주 많아요! 예쁜손으로 하트만들기, 친구를 안아주기, 괜찮아 친구야 토닥여 주기... 등 나눔교육에 참여하며 김만덕할머니의 삶과 나눔정신을 마음에 담고 친구를 사랑하고 돕는 나눔어린이가 되

로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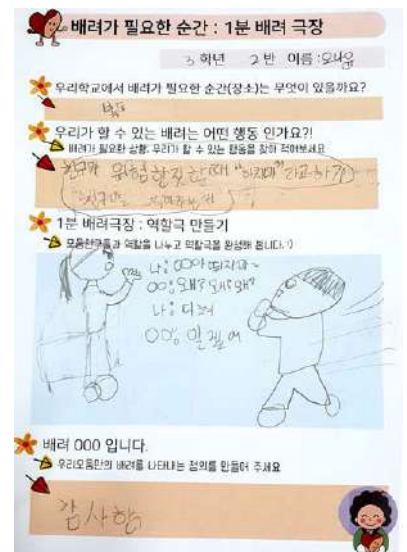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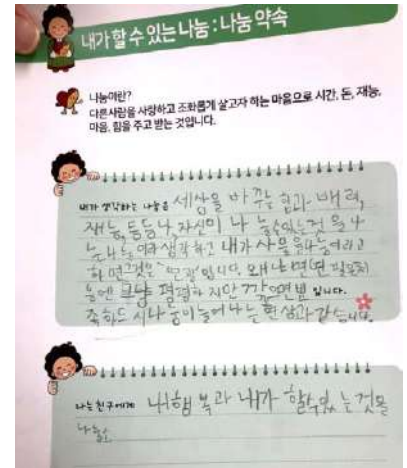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제주시와 먼 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나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김만덕할머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우리몸으로 할 수 있는 나눔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찾고 나눔활동을 열심히 하기로 했다. 다음 만남에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왔을 때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 “소중한 곰인형을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었을 때 행복이 두 배가 된다는 것을 익혀나갔다. 4회로 나누어 실시되는 마지막 수업은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하여 이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김만덕기념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중 기획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나눔교육 프로그램>

<꿈나무 나눔더하기>



김만덕기념관에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첫 학교인 신광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을 시작으로 김만덕 할머니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나눔의 정의를 함께 내려 우리만의 나눔 나무를 만들었다. 친구들의 마음에 나만의 <나눔>에 대한 생각이 싹트길 기대한다. 11개 초등학교 1,312명 대상, 255회 운영하였다.

신제주초등학교/대흥초등학교/도련초등학교/새서귀초등학교/함덕초등학교/영평초등학교/강정초등학교/광령초등학교/오라초등학교/신광초등학교/어도초등학교

‘꿈과 재능을 키우는 사랑의 학교’

신제주초등학교(김선희 교장)의 꿈·끼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 하루의 첫 인사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 나눔의 첫 시작이다. 지난 10월 04일 신제주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만덕기념관 나눔교육프로그램<꿈나무 나눔더하기>를 운영하였다. 나눔 교육 현장인 신제주초등학교의 김선희 교장선생님은 김만덕기념관의 아이들을 위한 나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들이 김만덕과 같이 도전과 용기를 내어 자신이 갖고 있는 끼(재능)를 키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제주초등학교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꿈을 찾고 끼를 키우는 ‘잇골 Hope 드림’축제를 열고 있다. 잇골은 신제주의 옛지명인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의 공장이라는 의미로 ‘꿈과 재능을 키우는 사랑의 학교’라는 신제주초등학교의 비전과 철학이 담았다. 학생들이 전통건축, 드론체험 등 23개 주제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체험하도록 하고 전문 직업인을 초청하여 진로에 대한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꿈·끼 탐색주간 잇골작품전시회’도 열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노력이 담긴 학생들의 작품과 감상문 등을 전시하여 학생들과 방문객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 하루의 첫 인사가 “사랑해요”라고 얘기해 주셨다. 2학년 교실을 직접 가 봤더니, 정말로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김만덕과 함께하는 나눔문화탐험대>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이 있나 찾아나섰다



신흥지역아동센터와 가마지역아동센터, 봉아름지역아동센터, 김녕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김만덕과 함께하는 나눔문화탐험대>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념관을 돌아보며 만덕할머니의 삶과 나눔에 대해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나눔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눔은 “물”이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까요...^^’씩씩한 친구들과 함께 탐험가가 되어 기념관 곳곳을 누비며 김만덕 할머니의 삶과 나눔, 도전 정신을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나섰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신(新)김만덕객주〉



김만덕기념관은 제주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신(新)김만덕객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만덕기념관 관람을 통해 김만덕의 장사 원칙과 객주생활을 배워보고, 자신이 김만덕이 되어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아보는 체험프로그램이다. 동문재래시장에서 산 제주특산물을 각각 홍보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구매한 물건은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해 기부함으로써 나눔정신을 실천하게 된다.

‘신(新)김만덕객주’를 통해서 옛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가치인식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서, 미래 도전정신을 배양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내 중.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대상

〈나눔하는 청춘! 입니다〉



도내 중.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김만덕기념관 전시관람 및 나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 도전! 정신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림고등학교/성산고등학교/탐라중학교/제주고등학교/남원중학교/대정고등학교/대기고등학교/서귀포여중/중앙고등학교/대정중학교/오현중학교 등 11개 중,고등학교, 1,605명 대상/ 13회 운영하였다.





후원 · 기탁

기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만덕로타리클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월 22일(화) 오전, 만덕로타리클럽(회장 한정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와 함께 이도이동관내 독거노인세대 30세대와 일도이동관내 독거노인세대 5세대에 총 350kg의 사랑의 쌀과 생필품(라면, 휴지), 삼다수를 전달했고, 뒤이어 조천 적십자 봉사회와 함께 조천읍 관내 독거노인세대 10가구를 직접 방문해 100kg의 쌀과 생필품(라면, 휴지), 삼다수를 나누었다.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1월 25일(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회장 임민희)와 함께 용담동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쌀을 나눴다.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에서 준비한 생필품과 기념관에서는 쌀 500kg과 개발공사가 지원한 삼다수 50박스를 준비해 홀몸어르신 50세대에 전달했다.

새로이 회장에 취임한 임민희회장을 비롯한 제주 여성경제인들이 조선 최초의 여성CEO였던 김만덕의 후예답게 나눔에 함께 동참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용담2동 주민센터를 찾아 관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쌀 300kg과 라면 30박스와 삼다수 3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주)경림산업 고동린전무의 용담2동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지정기탁금으로 나누게 된 것이다.

제주 기관 및 단체장, 임원과 함께 '김만덕 사랑의 쌀' 과 생필품을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이시돌복지의원



2019년 1월 8일, 새해 첫 나눔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김만덕 사랑의 쌀 1,200kg을 지정 기탁했다. 기탁된 쌀은 제주시독거노인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5월 10일(금), 한림읍에 위치한 성이시돌복지의원을 방문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철 (Young Cheol Kim) 전 건국대학교 대학원장께서 기부해주신 임금남 쌀 300kg와 김만덕사랑의나눔 쌀 200kg를 합하여 500kg의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왔다. 성이시돌 복지의원은 설립자 임피제 신부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말기암환자, 요양이 필요한 무의탁 환자들을 모시고 편안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가족처럼 사랑으로 보살피고 드리는 무료의원이다.

제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1월 23일(수) 오전, 제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제주시내 독거노인 30세대에 전달할 김만덕 사랑의 쌀 300kg과 개발공사에서 지원한 삼다수 30box를 기탁했다.

전달식 후 센터 직원과 함께 도남동에 있는 어르신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어르신들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연신 고맙다며 인사하셨다. 쌀과 물을 드리긴 했지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 걱정이 되었다.



추석 '김만덕 사랑의 쌀 전달'



추석 명절을 맞아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만덕 사랑의 쌀' 2,000kg을 나누었다. 9월 4일에는 다문화가정세대와 노인복지시설, 9월 5일에는 건입동행정복지센터, 조천읍의 홀몸어르신세대, 용담동등 제주시에 홀몸어르신세대와 사회복지시설등에 추석전까지 총 2,000kg의 쌀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제주금융협의회(회장 김종욱 한국은행 제주본부장)는 김 130세트, 제주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삼다수 100묶음을 지원했고, 4·3희생자유족부녀회(회장 오정희) 유적지순례 참가단이 쌀 300kg, 제주만덕로타리클럽(회장 임현수)이 100만원, 제주시에 거주하는 독지가 양채윤님은 경기도 여주에서 맛이 좋은 햅쌀을 직접 주문해 김만덕기념관으로 1,000kg의 쌀을 기탁했다.

조천적십자봉사회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조천적십자봉사회와 함께 조천읍지역에 살고 계시는 홀몸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쌀과 물, 김을 추석명절에 쓰실 수 있도록 드리고 왔다.

다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지붕이 내려앉아 뚫린 집에 살고 계신 어르신, 거의 무너져가서 간신히 기둥으로 버티고 있는 집이 매우 위태로웠다.

태풍이 온다하여 문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을 받쳐놓은 모습 등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르신들을 돌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였다.

올해는 잦은 태풍에 피해가 컸고 복지 사각시대에 놓인 가정이 없나 사회적인 관심을 갖아야겠다.

만덕로타리클럽



9월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도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만덕 사랑의 쌀을 나눴다. 만덕로타리클럽과 함께 창암재활원을 방문해 쌀과 휴지를 전달한 후, 삼도일동, 이도일동,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노인회와 내도동노인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쌀과, 삼다수, 김, 온누리상품권을 전해드렸다. 이번 나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제주중소기업회장 고상호)가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해주었고, 제주금융협의회(회장 김종욱 한국은행 제주본부장)가 김세트를, 제주개발공사(사장 오경수)가 삼다수를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9월 9일 대한건설협회 제주대회(회장 장태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만원을 기탁해주었다.

'번포만덕중학교 입학식



'번포만덕중학교' 신입생 입학식이 9월 5일에 개최되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한양대학교 하노이 동문회 김홍업회장등 회원들이 보내온 소식이다. 동문회는 정기적으로 번포만덕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장학금 기부를 위해 참석한 입학식 식순 중에 특별히 김만덕을 기리는 순서가 있었다고 한다. 입학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번포만덕중학교라고 쓰여있는 기념비 쪽으로 선 가운데 헌화를 한 후 김만덕을 기리며 묵념을 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의 정신이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해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삼광사 덕희봉사회 김장나눔



12월 8일 삼광사 덕희봉사회 김장나눔행사에 김만덕기념관도 함께 쌀 300kg을 보탬다.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나눔에 기념관도 개관 이래 매년 함께 하고 있다. 따뜻한 밥 한 숟갈에 갓 담근 김치 한쪽,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제12회 사랑의 쌀 나눔대상 시상식



지난 11월 30일,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12회 사랑의 쌀 나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만덕기념관은 인천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500kg을 기탁했고,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해오신 강정애님에게 사회봉사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기념관과 운동본부는 2016년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사업에 협력해오고 있다.

연말연시 '사랑의 쌀 나눔'



12월 17일, 이호동 주민센터와 용담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김만덕 사랑의 쌀 각 2,3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난 12월 5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수봉)가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차상위계층 및 홀몸어르신 세대 등 개별세대를 위한 사랑의 쌀 성금 3,500만원을 김만덕기념관에 기탁한 기탁금으로 마련되었다. 연말까지 노형동, 용담1동, 삼도2동, 애월읍, 도두동, 외도동에도 사랑의 쌀이 전달될 예정이다.

2019 '김만덕 사랑의 쌀' 배부처

사라의집	제주시다문화지원센터
만덕로타리클럽	제주이주민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색달요양원
삼광사	건입동 주민센터
이도이동주민센터	희망나래
제주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1366 긴급전화
정효원	미타요양원
제주신보 마라톤대회	조천적십자봉사회
천사나래 주간보호센터	내도동 노인회
대정읍새마을부녀회	노형정든마을1단지 노인회
노형성당	작은예수의집
일도2동 장애인연합회	우도면사무소
성이시돌 복지의원	음식박람회
성이시돌 요양원	대정노인회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만덕로타리
삼광사	소롭티미스트
제주적십자사	제주의소리
생명의 샘	서귀포시 및 제주시
송죽원	정든마을 3단지 노인회
제주지방경찰청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삼광사	삼광사
	대정 적십자봉사회



제주금융협의회(회장 김종욱 한국은행 제주본부장)가 김세트를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제주중소기업회장 고상호)가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해주었다.

김만덕 사랑의 쌀 기탁



1월 17일 오전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강승표)에서 김만덕 기념관에 사랑의 쌀 600kg을 기부했다. 이날 기탁된 쌀은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가 '2018년 제주자원봉사대상'(주최 제주新보·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에서 기업부문 우수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만덕의 고귀한 나눔 정신을 잇고자 김만덕의 후손인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도헌공(후찬)종문회(회장 김용석)'가 기념관에 사랑의 쌀 기부금을 기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여성회 현정자 회장,가 기념관에 사랑의 쌀 기부금을 기탁했다.



제주만덕로타리클럽(회장 현정숙)가 기념관에 사랑의 쌀 기부금을 기탁했다.



서예가 양상철선생부부가 기념관에 사랑의 쌀 기부금을 기탁했다.



5월 1일, 덕산문화재단(이사장 김명신)이 작년에 이어 기념관에 김만덕 사랑의 쌀 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덕산문화재단은 매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덕산문화상 시상 등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사업을 펼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6월 2일 탐동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회장 오홍식)'가 주최하는 '2019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김만덕기념관과 사라봉 모충사를 경유하였다. 김만덕기념관은 이번 대회에 동참하는 취지로 김만덕 사랑의 쌀 500kg을 기탁했다.



6월 18일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영생)가 사랑의 쌀 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기부금은 지난 5월23일,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사랑·나눔행사'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샤리아(이슬람 율법) 전공한 '제주이슬람문화센터 김대용 이사장' 할랄 산업 확산 앞장서 오시는 분이고 Riseap nothern zone youth camp 참가자들이 김만덕기념을 돌아보고 사랑의 쌀을 기탁했다.



10월 15일 김해김씨좌정승공파종친회(회장 김주언)가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성금으로 300만원을 김만덕기념관에 기부했다. 김주언 회장은 "김만덕의 후손으로서 할머니가 실천하셨던 나눔정신을 계승, 실천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10월 17일 건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 김추자여사가 '2019 제3회 김만덕추간을 맞이해' 사랑의 쌀 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김추자여사는 '2019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시상식'(주최 보건복지부, 한국방송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KBS사장상을 수상했다.



11.27-28 하나로마트 오라점 장희순 점장을 비롯하여 직원 12명이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했다. 직원들은 기념관 관람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쌀 100kg도 기부해 주었다.



10월 30일 제40회 김만덕상 경제인부문 박경란(주식회사 신동아문구 대표)수상자가 김만덕상 상금 500만원과 사재 500만원을 합해 1,000만원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만덕기념관에 기탁했다.



11월 19일, 사단법인 분다클럽(총회장 김태운)이 김만덕 사랑의 쌀 1,000kg을 김만덕기념관에 기탁했다.사단법인 분다클럽은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남성 불자 모임으로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2월 10일 오후, 평산전력기술(주)이 김만덕기념관에 사랑의 쌀 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고용원 평산전력기술(주) 제주지사장은 2009년 김만덕 나눔쌀 만 섬 쌓기를 시작으로 김만덕기념관 개관 이후까지 그동안 김만덕 기념사업에 적극 협력해왔다.



12월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최윤원)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활물품 구입비용 온누리상품권 532만원을 김만덕기념관에 기탁했다 직원들이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한 사회공헌펀드로 마련되었다.



12월 1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부녀회(회장 오정희)의 제주-오사카 4·3여성 민간 교류회 참가한 회원일동이 기념관에 사랑의 쌀 300kg을 기탁했다. 항상 기부에 동참해주시는 오정희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9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장태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만원을 기탁해주었다.

2019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만덕 사랑의 쌀

(재)덕산문화	김성애	백광익	양혜미수익금	조영남
(주)신동아문구	김세억	백양희 전단장	어영마을경로당	조영숙
(주)엠비에스	김이남	보우와 손님들	유엔비코포레	주식회사한송
(주)태건비에	김인순	북초등학교	유영균	주영현가족
4.3유족회	김재영	분다클럽	유적탐방참가	주주머니라톤
NH농협은행 남문지점	김재정	사)제주특별	윤진호정형외과	지행초5학년
강경호	김재춘	사대부고	이순옥	청도군 박민수
강다현	김제농협쌀조합공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용길학장	최정인
강맹효	사업법인 제주사업소	새솔어린이집	이은미	커브스 제주클럽
강서연	김주연	서귀5기 4조	이종례	하나로마트 오라점
강순희	김추자	서귀5기일동	이종수외4명	한국공항공사
강승협	김호선	서유준	이한영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강영희	나눔전시 김성오	서은우	이현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우현	나눔전시 김시현	성문산업	장연수	제주지회
강진군도서관 우리들서평단	나눔전시 김진수	소담회	정봉식	한길순
건설협회제주-	나눔전시 김현숙	손영균	제주mbc	한림공고 김동하
건입동 참또바기밥집	나눔전시 부상철 작가	송연희가족	제주국제협의회	한소리봉사회
고동린	나눔전시 양재열	송죽원직원일동	제주도민	한소리합창단
관광안내사협회	나눔전시 이미선	신보제주	제주만덕로타리	한월자
길친구	농협제주도청	아름다운동행 수눔음	제주만덕로타리클럽	한창훈
김경문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아인시스템신	제주만덕로타리클럽	할머니일동
김대용	도여성단체협의회	양상철	제주문화원	합천군의회
김돈흠	만덕학교 김선애 수강생	양승아	제주은행	향토문화연구
김만덕기념관 김정삼 해설사	만덕학교 김수민 수강생	양주현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김만덕상 수상자회	무기명	양채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미숙	박명순	양태열	제주패스	

CMS후원

(주)부림종합건설	(김만덕기념관)	김영랑	박선희	박선영	오명희	전귀연	홍민표
(주)아성기술단	곽민	김영숙	박장서	박순희	오영환	전윤하	홍석기
(주)엠비에스	김상훈	김용석	박정환	이은아	유태익	정명희	홍성만
(주)한독커뮤니케이션	김세영	김은희	박지영	이종례	윤순복	조윤경	홍성주
강경필	김정수	김재훈	백운길	홍경여	윤용팔	(주)우리방재	홍순길
강소빈	김창현	김종철	변철환	손숙자	이경미	진춘자	홍용기
강지예	김현주	김진아	서은경	송순이	이금실	최영순	홍혜경
강희자	양수임	김향선	성경숙	송승환	이수정	최영화	홍혜진
고명희	전학봉	김형미	(소롭티미스트)	송연희	이유경	최은영	황진이
고병수	김미영	문관영	강윤희	신영수	이일순	한보규	장수호도너눔사업
고석연	김병순	문미현	고애연	안성옥	이치봉	한승창	개발공사
고안희	김복자	문양식	고은재	양진영	이향숙	한인자	농협은행
김기문	김수안	문정홍	김미정	양창진	임영옥	허순자	관광공사
김기태	김순덕	박금난	김수정	양채운	장상우	현성우	제주은행
김길리	김시우	박동수	김순미	양춘자	장정은	홍경훈	
김도훈	김애영	박미경	김정미	양하건	장혜련	홍명규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전시관

김만덕기념관



2015년 5월 29일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은
갑인년(정조19년) 대흥년에 전 재산을
내놓아 굶주린 제주민을 살린
김만덕의 삶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녀의
도전정신과 나눔의 삶을
기리고자 조성된 기념관입니다.
<http://www.mandukmuseum.or.kr/>



3층 상설전시실 '은혜로운 빛을 만나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였던 김만덕의 삶과
정신(도전-나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

2층 나눔실천관 '은혜로운 빛을 따르다'
나눔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눔의 실천을
체험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

1층 나눔문화관 '은혜로운 빛이 퍼지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기획전시가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은광衍世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제4호

이번 호의 화두는 정약용의 '余不贅。余論萬德。有三奇四稀。'였다. 채제공의 만덕전, 이가환의 시, 박제가의 소전과 시에 비해 정약용의 김만덕에 대한 글의 첫인상은 요즘 유행하는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팩트체크(FactCheck)'와 같이 차갑게 다가왔다.

정약용이 나고 돌아간 마재의 여유당, 서학을 공부하고 조선의 천주교를 창설한 주여사와 형과 스승이 묻혀있는 앵자봉 기슭, 다산의 조카사위인 황사영이 숨어지낸 충북 제천의 배론과 조카 딸 정난주의 대정읍 묘 등 천주교 성지와 강진 유배지인 다산초당을 찾아다니고, 다산에 대한 수많은 자료를 살폈다.

'수만 권의 서고가 모너졌다'고 다산의 부고를 받은 홍길주의 탄식이었다. 그는 수많은 글에서 자신으로 인해 해가 가지 않게 철저한 자기검열을 했기에 진실은 행간에 가린 채로 김만덕에 대한 2편의 글을 '여유당전서'에 남겼다. 그만큼 다산에게 김만덕은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가진 역사에 기록될 분이였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좌동열(제주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님이 의견을 주신 은광연세 제3호의 23쪽 '제주 여인과 해녀' 사진에서 제주해녀는 가슴을 가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1914년 경북경주 감포에서 촬영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김만덕의 내의원(內醫院) 행수의녀(行首醫女)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기록과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광연세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선행 사례가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편번호 63278) 또는 <http://www.mandukmuseum.or.kr>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에 올려 주시면 소식지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나눔실천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을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농협 301-0185-2939-31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衍世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편집인 김상훈(김만덕기념관 관장)
진행 객민, 김창현, 전학봉, 김세영, 양수임, 이혜규
사진 신익재, 전학봉, 양수임 외
교정 김옥선
제작 도서출판 비지아이

발행 김만덕 기념사업회
발행인 고두심 상임대표
발행일 2019. 12. 27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63278)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2019 김만덕기념관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恩光衍世

이 광 연 세

2019





관람안내

관람시간 09 - 18시(매표 마감, 오후 5시)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 람 료 무료

대관안내

기본시설

교육관 좌석수 200석, 강당면적 221.90m², 무대면적 28.22m²

오전, 오후, 야간 기준

그 밖의 사용 냉난방시설(1시간), 상업용 영상 촬영, TV촬영, 영화 촬영

※ 시설허가신청서 작성 및 소정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찾아오는길

버스 (동문로터리, 용진교 하차 도보 5분)

간선 315

지선 426, 431, 432, 465, 466



김만덕기념관

주소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건입동)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http://www.mandukmuseum.or.kr>